
發展理論으로서의

從屬理論에 對한 批判的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高 昭 男

指導教授 高 性 俊

1983年 月 日


高昭男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金恒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審 高南旭 

副審 高성준 

1983年 月 日

目 次

I. 緒 論	11
1. 研究 目的	11
2. 研究方法 및 範圍	13
II. 近代化 理論에 對한 再照明	15
1. 資本主義의 成立과 發展	15
2. 第三世界와 近代化理論의 한계	17
III. 從屬理論의 形成과 構造	22
1. 成立 淵源	22
2. 從屬理論의 등장과 전개	24
3. 脫 從屬의 戰略	37
IV. 從屬理論에 對한 綜合的評價	41
1. 理論의 問題點	41
2. 韓國에의 適用性 여부	47
3. 從屬理論의 實効性	52
V. 結論 ; 韓國의 獨創的 發展理論의 모색	55
參 考 文 獻	58
英 文 抄 錄	64

I. 緒 論

1. 研究 目的

第三世界는 그들의 특수성이 올바르게 파악되지도 않은채 發展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었다.

西歐의 근대 화이론은 인간행동의 基本 差異에 토대를 두는 行態主義와 自律的 메카니즘을 강조하는 無歷史的 觀點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個體는 그들이 처한 특수한 입장에서 살피져야하며 그러기에 第三世界の 歷史的 특이성에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

J.L. Brierly는 “ 독립이란 용어의 적절한 사용은 다른 국가로 부터의 명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대내적 관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 ”를 뜻하며 “ 다른 국가에 의한 지배로 부터의 자유 ”를 말한다고 지적한다.

第三世界²⁾의 저발전은 본원적, 본래적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것이며

1) Karl Mannheim, Thomas kuhn 등은 진리의 기준과 그 유효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 과학에 있어서 개념, 이론, 전제, 가정, 패러다임 등은 사회환경에 따라 특수성을 띤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과는 다른 제 3 세계의 독자적 정치경제학은 가능하며 유효하다. (고대신문, 제 915 호, 1982. 5.25)

2) 第三世界 (Third world)란 말의 사용은 1950년 프랑스의 A.Sauv와 G.Barand의 같은 제목의 책의 발간에서 부터이다.

그 사용되는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자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한 빈국
- ② 모택동이 구분한 중간지대 국가
- ③ 미, 소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항하는 국가
- ④ 선진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저기술, 저이윤, 저임금 및 제한된 상품 수출을 하는 국가
- ⑤ 종래 후진지역, 저발전국, 발전도상국 등의 우열 비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사용

그것은 內在的상황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국제체제의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는 自我準據的 視角을 從屬理論家들을 요구한다.

발전이론을 “帝國主義의 옷(emperors' clothes)”이라고 표현하는 Frank의 견해나 종속이론을 “발전주체의 존재양식에 관하여 문제 삼는것”이라는 文丞益의 說明등은 第三世界 지식인이 자국의 역사상황의 특수성과 주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절대적 빈곤과 대결하는 제3세계의 공통된 현상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존의 기로에서 택할수 밖에 없었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부각시켰음이 사실이다.

從屬理論的 접근시각은 그 理論-理論이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지만 -의 참신성 때문에 지식인 특히 대학생들에게 크나큰 反應을 일으켰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체안은 제시못하지만 기성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비록 허위일지라도-때문에 현실비판적이며 탐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신비한 매력을 풍긴다.

마르크주의 “일차원적 인간”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오늘날 과연 어느것이 올바른 시각이며 참된 발전인가를 살펴 보고 그 방향과 접근방법을 설정해봄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사실, 發展이란 人間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목적가치와 더불어 수단가치가 동시에 충족될때 가능하다고 본다.

즉 기본적으로 필요한것은 物質的 번영이나 향락이기 보다는 生活의 質 (the

⑥ 세계체제를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하고, 자본주의 집단을 다시 제국주의와 제3세계로 구분

⑦ 국제정치상의 하나의 세력권으로 사용(비동맹회의 등)

第三世界는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공산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는 同質性이 있다. (洪旭憲, “第三世界 資本主義論에 關한 研究” 석사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pp. 1~2 인용)

quality of life)적 향상이다.³⁾

그러기에 社會主義的 進路만이 發展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것도 아니며 逆으로 資本主義的 成長만이 唯一한 發展의 과정도 아니다.

최근에 이 두 視角이 상당한 정도로 接近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⁴⁾

최소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發展문제에 관한한 이미 教條的 立場을 취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논쟁보다 이 양자의 立場을 동시에 인식 하면서 參된 人間 生活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本 論文의 目的은 위에적은 視角에서 從來의 발전이론과 第三世界의 自我準據的 從屬理論을 살펴봄으로서 보다 나은 韓國의 發展理論 모색을 위한 예비적 시각을 제공하려는데 있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現在로서는 近代化 理論이나 從屬理論이 모두 部分的일지라도 經驗的으로 妥當한 根據를 갖는다고 思料되므로 本 論文에서는 다음과 같은 研究方法을 使用 했다.

첫째, 여러 學者들의 研究結果를 分析하는 文獻研究를 取하였다.

近代化理論이건, 從屬理論이건 間에 理論인以上 一次的인 檢證資料에 依한 檢證보다는 論理的 構成이나 理論體系등을 分析하는것이 보다 效果的일것이라는 筆者의 判斷때문이다.

3) 부와 물질의 획득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정도 중요성을 띄는가에 대하여 Toynbee는 서양인에게는 그것은 최우선이나 동양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한국인은 애정 (affection)을 최우선으로 둔다. (Hahm, Pyong-choon, "The affective Society-Values and law in Korea," in H.Lasswell, D.Lerner and J.D.Montgomery (eds), Values and Development, Cambridge; MIT Press, 1976, pp 190 ~ 232), 金東炫, "社會的 側面에서 본 發展理論의 再吟味," 한국정치학회보 第 15 輯, 1981, p.40 재인용.

4) 이말은 수렴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에 수렴이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둘째, 그 분석은 比較研究라는 立場에서 韓國의 發展問題에 關한 獨創的 理論을 摸索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人間이라는 社會的 存在는 恒常 自己批判을 通하여 보다 나은 來日을 創造해 나간다.

새로운 分析視覺의 確立과 함께 社會科學方法論에 있어서 總體的 歷史狀況分析 (society of whole)을 그 方法으로 提示하고 있는 從屬理論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韓國을 主體로 하여 諸學者의 研究結果를 比較하는 것이 보다 나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 韓國의 發展問題에 對한 獨創的 理論모색이라는 點에서 近代化 理論이던 從屬理論이던 間에 可能한한 客觀的으로 그 밝은面과 어두운面을 아울러 考察하려 했다.

흔히 社會科學이 犯하기 쉬운 主觀的 獨斷을 크게 배제하려고 애썼다.

從屬理論은 그 理論體系가 最近에 이루어졌고 그 受容에 있어 相當한 批判的 眼目이 요청되므로 이에 對해서는 近代化理論보다 많이 살폈다. 이는 近代化 理論은 이미 韓國이 5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토대를 이룬 理論으로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本論文은 從屬理論과 같은 결코 單純치 않으며 심지어 戰鬪的이기도 한 對象을 살핌에 있어 極히 制限된 文獻과 資料에 依한 研究이므로 편향可能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음은 이 글의 範圍를 크게 制限하고 있다.

II. 近代化 理論에 對한 再照明

1. 資本主義의 成立과 發展

오늘날 國家 및 國際的 經濟現實에서 國家와 政府의 역할과 機能이 크게 擴大되어감에 따라 政治狀況의 構成에서도 經濟的 變數가 相當히 作用하기 때문에 18 C 經濟學을 指稱했던 用語인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의 概念이 다시 強調되고 있다.⁵⁾

低發展 國家의 發展理論들도 第三世界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一種의 綜合社會科學(comprehensive social science)을 援用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므로 本論文에서는 發展을 經濟的 生産關係의 社會, 政治的 性格을 強調하는 政治經濟學의 맥락에서 記述하겠다.

元來 資本主義(capitalism)란 中世封建制度의 解體 以後에 西歐世界에 나타난 經濟體制를 나타내는 用語인바 그 生成 發展의 原動力을 人間本性(human nature)에 內在하는 交換性向이라고 보는 Adam Smith類와 人間 또는 집단이 비 자연적 성질(unnatural qualities)로 보는 Werner Sombart와 Max Weber類, 그리고 生産 製관계(relations of production)로 보는 Karx Marx類 등으로 구분된다.⁶⁾

사실 자본주의 경제학은 본질적인면에서 Adam Smith에서 비롯되는 자유주의 理論을 그 大宗으로 삼는다.

고전적 정치경제학파의 전통을 이어 받아 「완전 경쟁」을 가정하며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운용 됨으로서 최대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신봉하는 입장이다.

5) 康弘喆, 從屬理論, 서울; 法文社, 1981, p.18.

6)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138 ~ 151. 洪旭憲, 상제논문 p.13 재인용.

Werner Sombart 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두개의 상이한 인간의 집단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무소유자인 단순한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교환 경제 조직이라고 한다.

Max Weber 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생산수단의 사유화, 교환의 자유, 계약의 자유, 이윤추구의 체제,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고 들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토대로 자유주의와 영리주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J.S.Mill 의 낙관적 견해나 Karl Marx 의 암담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거대한 富와 생활수준의 비약적 상승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현상을 나타내게 한 것도 사실이다.

독점자본주의의 부정적 현상에 대하여 근본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의 변화는 1930 년대의 J.M.Keynes 의 등장 이후다. 그 관점의 變化도 대상은 국내 政策에 關聯된 것 뿐이었다.

國際經濟理論은 계속 比較優位論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에 기초를 둔 자유무역理論의 利點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후진국發展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하는 接近方法에 있어서도 自由論者들의 立場은 傳統的인 資本主義의 開放的이고 自由로운 競爭體制를 通하여 經濟를 發展시켜야한다는 論據에서 貿易과 資本의 積極的인 國際交流를 主張하면서 資本主義의 長點을 예찬한다.

Myrdal, G 의 擴散效果⁷⁾를 믿는 自由交流의 自由論者들은 國際分業의 利益과 交換利益, 그리고 모방利益等を 핵심적으로 強調한다.

國際分業은 生産性を 높일 수 있으므로 資本이 많은 나라는 資本集約財 生産에 專念하고 勞動力이 豊富한 나라는 勞動集約財 生産에 專念함으로써 全體的인 生産

7) Myrdal, G 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집단과 집단,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交流할 때는 交流에서 오는 利益이 서로 고르게 分配되어 利益을 보게되는 擴散作用 (spread effect) 과 이와는 反對로 交流를 通해서 弱者의 것이 强者에게 넘어가는 逆流作用 (back wash effect) 이 있다고 했다.

어떤 作用이 支配的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交流하는 雙方의 여건과 關係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効率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商品交換(貿易)을 통해서 財貨의 効用을 높이고 國民消費水準을 潤滑하게 할 수 있으며 資本은 없지만 마땅히 投資할곳이 있는 나라는 그와 反對의 與件을 가진 先進國으로부터 外貨를 導入하므로서 서로 利益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國際交流를 통해서 後進國은 先進國이 오랫동안 蓄積해온 技術, 文化, 科學, 生活樣式等を 短期間에 모방하여 近代化에 소요되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고 한다.⁸⁾

이들에 의하면 國際的 不平等의 深化 傾向은 自由主義原則의 適用에 依한것이 라기보다는 당해 國家의 不合理한 政策에서 기인한 自由主義 原則으로부터의 이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⁹⁾

2. 第三世界와 近代化理論의 한계

近代化 理論은 Guerreiro - Ramos 의 近代化論에서 비롯된다.

모든 사회는 이미 발전된 국가가 밝은 그 단계들을 필히 거치는 것이 역사의 필연법칙이라는 것이다. 근대화 이론의 골격을 요약하여 보면¹⁰⁾

첫째, 발전은 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사회를 일반적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

둘째, 저발전 국가들은 전통, 봉건등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면 곧 발전이 가능하다.

셋째, 특정의 정치경제적 과정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능케 해 주는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近代化論은 學者에 따라, 그 概念, 分類 基準등에 따라, 多樣하게 展開될수 있

8) 朴 昇, “從屬理論과 韓國經濟”, 言論記者 研修院 研修教材, 韓國言論研究院, 1981, pp.1~2.

9) 廉弘喆, “아담스미스 부터 從屬理論까지”, - 從屬理論, 그 批判과 受容문제 - 政經文化, 1981년 3월호, pp.76~77.

10) 趙退耕, “從屬學派의 背景과 理論들”, 政經文化, 1981. 3. p.65.

으나 指數的接近과 擴散理論, 그리고 心理學的 接近法에 의해 살펴본 후 經濟의 均衡發展이라는 立場에서 均衡成長論과 不均衡 成長論으로 그 內容의 充實을 기하려고 한다.¹¹⁾

1) 指數的 接近法 (Index method)

經濟發展과 文化變動을 兩極的인 理念型 (Ideal Type)으로 하여 이에 對한 統計를 比較 分析하려는 接近方法으로 Hoselitz의 類型變數 (Pattern Variable) 論과 Rostow의 역사적 발전 단계설 등이 있다.

지수모델은 저발전의 지역적,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한채 한 사회의 발전을 직선적이고 단일한 과정으로 본 결과, 서구의 경험과 가치 基準에 입각하여 저발전의 實相을 正確히 把握치 못하였다는 評을 받는다.

2) 擴散理論 (Diffusionist Approach)

發展은 西歐의 近代性을 이어받아 文化變容 (acculturation) 시킴으로서 이루어진다는 立場이다.

西歐社會가 그 成立의 要件들로 하고 있는 技術, 科學, 組織形態에로 低發展國들이 同化되어가는 過程을 發展으로 본다. 이는 西歐人의 自民族中心主義 (ethno-centrism)에서 나온 “西歐의 世界化” 또는 Hegel의 「世界精神」의 구현이라는 觀點일 수 밖에 없어 個體를 無視한 보편의 追求라는 評을 들을 수 밖에 없다.¹²⁾

3) 心理學的 接近法

個人的 成就動機가 經濟發展, 文化變容의 始作이요 끝이라는 接近法이다.

Everett Hagen과 MacIelend 등에 依해 代表되는 이 理論은 Max Weber의 “Protestantism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 schumpeter의 “經濟 發展 理論” 등에

11) 김영명, “發展理論으로서의 從屬理論研究”, 碩士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外交學科, pp.7 ~ 11.

12) 황성모, “近代化理論의 脫 神話化”, 서울評論, 1975년 6 參照.

서의 價値, 企業精神의 強調로 더욱 고무 되었고 強化되었다.

그러나 이 接近法은 方法論的으로 볼 때 人間의 心理狀態와 經濟發展과의 적절하고 效率的인 因果關係를 못 밝히는 弱點을 지니고 있다.

低發展國의 歷史存在 自體를 否定하고 發展을 爲해서는 政治, 經濟, 社會構造, 權力 配分等의 問題를 배제하여 低 發展의 原因을 個人的 次元으로만 돌리는 保守的 Ideology 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

위에서 본 세 接近法은 第三世界가 停滯狀態에 있다고 보는데 이를 貧困의 惡순환으로 因한 低發展 均衡 내지 低所得均衡으로 把握한 이가 R.Nurkse 인바 低發展 均衡에서 成長 經路에의 진입 方法으로 展開된 것이 均衡成長과 不均衡成長 理論이다.

均衡成長論은 經濟의 수많은 部問, 或은 生産단계에 있어서 同時的으로 投資가 遂行되지 않은限 不連續的 比약에 依한 持續的 成長이 實現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³⁾

이는 多樣한 成長 經路에 關한 論議를 提起하고 成長에 必要한 첫 initial 投資는 언제나 外部에서 求하게 되어 있으므로 對外 援助를 合理化하는 역할을 다했다.

많은 外國의 援助에도 不拘하고 持續的 成長은 여러나라에서 반드시 實現된것은 아니어서 均衡成長論에 對한 再考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即 國家가 一舉에 全般的인 補完投資를 하여 需要開發 및 供給擴大를 可能토록 하게 하여야 한다는 均衡發展論의 結論이 現實에 있어서 最適 投資 決定이 不可能하다는 點을 내세워 등장한것이 A.Hirshman 等の 不均衡 成長論이다.

關聯效果를 가지는 產業部門에 投資를 集中시켜 他部問에 과급效果를 미치게 하는 Dynamic 한 過程을 創出해야 한다고 한다.

不均衡 成長論에서 主要部門으로 擇한 것이 最終 消費財 조립產業이었고, 最終 消費財를 主導產業으로하는 發展戰略은 必然的으로 輸入을 增大시켜, 이 또한 外國의 公私資本의 移入을 正當化시키므로써 國際收支의 惡化와 外援내지 外債의 누증을 結果했다.

13) 車基壁,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의 社會科學的 意義”, 社會發展研究—理論, 方法 및 歷史,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民音社 刊, 1978. 9.30, pp.211 ~ 213.

한편 西歐에서 發達한 發展理論의 內部에는 發展된 經濟는 收益機會의 減少, 分業進展의 限界, 土地資源의 制約等으로 因하여 어느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非發展 經濟(stationary)에 移行한다는 vision이 있었다.

Karl Marx는 이 理論을 進展시켜 資本主義經濟의 崩壞를 豫言했던 것이다.

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은 非發展 經濟의 出現을 지연시킬 方法을 勸했는데 그들은 技術革新과 國際分業에 依한 原料, 商品市場의 確保를 그 方案으로 提示했다.

Keynes 經濟學은 이와 같은 立場에서 그 脈을 같이하며 第三世界의 分配 構造와 關聯시켜보면 이는 貯蓄·投資形 接近法이 된다. 이러한 接近方式은 民族(nation)의 意味를 弱화시키고 上層勢力을 民族의 中心으로 삼는 傾向이 있다.¹⁴⁾

貯蓄이 投資만되면 所得과 고용이 自動적으로 增大되므로 國內, 海外貯蓄이냐는 問題삼지 않는다.

貯蓄性向에 있어서도 財產所得이 勤勞所得보다 높으므로 低賃金構造와 所有의 不平等, 獨占을 正當化하는 結果가 된다.

投資의 效果를 極大化하기 爲하여 公害防止費의 投入을 相對적으로 減少시켜 企業은 德을 보고 民衆은 피해를 입는다.

所得의 分配가 限界 生産性에 依해서 決定된다고 하지만 現實적으로 限界生産性을 測定할 수 있는 尺度가 없고 보면 所得分配를 決定하는 要因은 없는 것과 같다.

勞動의 低賃金を 低生産性的 탓으로 돌림으로서 資本의 利益을 恒常 正當한 것으로 삼게 한다.

分配를 犧牲시키고 成長을 促進하려는 政策目標과 合致될 수 있는 理論은 低賃金, 不平等 및 公害의 轉嫁위에서 輸出增大를 民族의 利益이라는 이름으로 追求한다.

政治적인 面에서도 Aristoteles 以來 많은 學者들은 豊요와 平等의 效果는 公開的이고 民主의이며 參與的 政治文化를 招來한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社會的 不平等의 심화는 政治體制의 合法性에 挑戰하는 下部階層의 좌절

14) 金泳鎬, “韓民族 概念의 社會經濟的 再 構成”, 한가람 創刊號, 1977, pp.56 ~ 58.

감과 不滿狀態를 심화시키며 階級意識을 高潮시키는 것도 事實이다.

近代化理論을 再照明해보면,

- ① 모든 低發展社會들을 封建的 社會로 보아 劃一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 ② 모든 社會들이 必然的으로 단 하나의 固定된 進化論的 틀을 通하여 進歩한다는 觀念은 歷史現象에 비추어 볼 때 實質的 根據를 얻을 수 없는 假說的 命題이며,
- ③ 西歐의 經驗에서 誘導된 發展모델은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에로의 移行이 內的 要因에 依해서 生成된다는 排他적 體制를 前題하며,
- ④ 民主化보다는 産業化가 強調되므로서 不均衡한 産業化로 因한 二重 構造의 심화에는 등을 돌리며,
- ⑤ 工業化, 民主化, 都市化, 教育의 普及, mass - communication의 發達等 近代化의 指標로 간주되는 여러 要素들을 따로 따로 評價하며,
- ⑥ 構造的인 關聯과 그 歷史的 發達을 把握하려 하지 않으며
- ⑦ 植民地에 對한 意識이 弱하여 植民主義도 하나의 近代化 推進 勢力으로 간주되는 傾向이 있고
- ⑧ 指導者의 역할을 過大 評價하고, 民衆의 역할을 過少 평가한다.
- ⑨ 封建制度가 近代化를 推進하는데 있어 遂行한 역할을 一面的으로 強調한다. 즉 양자의 相互對立을 外面한다.¹⁵⁾

위에서 分析한 모든 發展에 對한 理論들은 그 對象이 되는 社會體制는 어떤 形態이며 富의 分配는 어떻게 進行되고, 傳統社會와의 융화는 어떠한가에 對해서는 明白한 提案을 찾아볼 수 없다.

經濟的 效率性만이 關心의 領域內에 位置할뿐 個個人的 具體的 삶을 條件지우는 社會, 政治的 判斷은 留保되어 있다.

如何間에 第三世界의 왜곡된 發展相은 先進國 기원의 近代化 理論에 反旗를 들게 했다.

15) 趙退耕, 上揭論文, p.66.

Ⅲ. 從屬理論의 形成과 構造

1. 成 立 淵 源

國際 政治經濟學의 中心主題는 經濟發展의 達成과 國際的 不平等의 除去이다.

獨立 以後에도 大國에 依해 經濟的 支配를 계속 받고있는 國際政治經濟의 現實을 直視하게 된 第三世界 國民들의 부푼 기대 革命(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은 時間이 흐르면서 깊은 失望과 좌절감으로 바뀌었다.¹⁶⁾

資本主義가 이루어놓은 發展은 限定된 社會經濟部門에만 惠澤을 주며, 經濟成長에 여러가지 國內的 장애물을 加重시키며, 國際收支赤字의 累積과 先進國 經濟에 的 從屬과 착취 構造를 심화시켰다고 主張하는 從屬理論은 國際的 不平等 문제에 着眼하면서 시작된 極히 最近의 理論이다.¹⁷⁾

그동안 國際的 不平等에 對하여 關心이 缺如된 理由는 國際 政治經濟體制의 冷戰構造와 戰後의 復興을 第一世界가 主導하여 왔고 第三世界는 國際構造上의 周邊國(Periphery State)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思料된다.

近代化論理는 基本的으로는 美國中心의 學問의 論理에 不過하다는 批判을 받게 되었고 G.Myrdal, 亦是 先進國形 發展方式이 第三世界의 當面한 問題 解決에 있어서 갖는 有用性에 對해 相當히 否定的인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¹⁸⁾

經濟成長論에서 始作하여 經濟 發展論을 거쳐 政治(或은 社會)發展論으로 이 어지는 近代化理論에서 第三世界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重要的 所得이 있었다면 그것은

16) 河環根, 第三世界 政治論, 서울, 한길사, 1981, p.33.

17) 第三世界의 共通點은 ①所得水準이 極히 낮으며 ②生産성과 技術水準이 매우 낮으며 ③工業化가 현저하게 뒤져있는 나라라고 一般化할 수 있다.

18) 張桂淳, Dependency理論을 통해 본 韓日關係에 관한 分析(1965년 國文正常化 以後의 韓國의 對日 經濟 依存을 中心으로) 碩士論文 延大 大學院 政治學科, 1978 p.9.

第三世界の 發展의 論理는 결코 西歐의 그것을 추종하는데 있지 않다는 事實이었다.

適切하고 獨創的인 理論의 不在는 混亂만 加重시킬 뿐이었다.

T.S.Kuhn, 은 不可解(puzzle)의 累積은 既存 paradigm의 變態(anomaly)와 危機를 造成하고 이는 結局 새로운 paradigm을 잉태한다고 하였다.

第三世界の 獨立後의 狀況은 새로운 視覺으로 低發展 現象을 分析 하도록 要求 하였다.

從屬理論이란 第三世界 中에서도 特히 南美諸國의 經濟가 重商主義 以來 계속 第一世界에 從屬되어 있다는 事實을 주목하고 그 실상과 歷史的 展開 過程 및 그에 수반되는 各種 病理現象(低發展 또는 歪曲發展現象)을 記述,說明, 批判하고 그들 나름의 發展 代案을 提示하는 一聯의 理論體系이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發展에 關한 思考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기 始作한 從屬理論은 순수한 學問的 動機와 자극에 依해서만 形成된것이 아니라 眞正한 自立的 發展이 前題된 實踐的 次元이 한층 더 強調되고 있다.

從屬理論은 全世界에 만연한 貧困과 低發展을 周邊의 發展要因의 不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 體制 內에서 發生하는 歷史的 構造的 產物으로써 把握하려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周邊의 發展은 先進資本主義中心으로부터의 모든 擴散(diffusion)에서 獨立함으로서 眞正한 發展이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은 植民地의 經驗을 가장 重要한 要素로 간주하며 方法論的 立場에서는

- ①國際體系論을 接近方法의 하나로 採擇 하며,
- ②歷史主義를 信奉하여 構造主義 接近方法을 重視한다.
- ③政治와 經濟의 力學 關係를 重視 함으로서 政治經濟學的 接近方法을 쓰며.
- ④全體論的 視覺과 自我準據의 接近法을 使用 한다.²⁰⁾

19) 김영명, 上揭論文, p.28

20) 金浩鎮, “從屬理論 批判” 現代社會 思想의 諸 潮流 — 左傾 思想의 흐름을 中心으로 — 國民倫理學會, 1982 年 春季세미나 發表 要旨, pp.97 ~ 98.

2. 從屬理論의 등장과 전개

1) 從屬의 概念

一般的으로 從屬學派에서의 從屬이란 用語는 經濟의 全體의 特性을 묘사하기 爲한 것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低發展에 關係된 어떤것을 說明할 수 있다는 목적적인 立場에서 使用되나 보다 明確한 定義로는 D.Santos의 것이다.

“從屬이란 一群의 國家經濟가 그들을 從屬시키고 있는 다른 經濟의 팽창에 依해서 條件지워지는 狀況을 意味한다.

둘 또는 그 以上の 經濟 相互 關係 또는 그들 經濟와 世界 貿易과의 相互 關係는 어떤 國家들은 팽창하고 發展하는데 反해 다른 國家들은 스스로의 發展에 支配 國家의 팽창의 영향으로서만 發展할 수 있을때 從屬의 모습을 갖게 된다.²¹⁾”

歷史적으로 從屬國家들이 몇가지 點에서 優越한 點도 있으나 이는 支配國家로 하여금 착취와 經濟인여를 약탈해 갈 수 있도록 할 뿐이며 支配國家들은 從屬國家들에 比해서 技術的, 商業的, 資本資源의 및 社會政治的面에서 優越한 位置에 있다.²²⁾

從屬의 英文 表記에 있어서 dependence로 할 것이냐, dependency로 할 것이냐에 對해서는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Caporas에 依하면 Dependence는 單純히 國家相互間의 非對稱的 相互依存關係上的 不平等(relational inequality)을 指稱하는 概念이고 Dependency는 相互依存 關係의 不均衡을 넘어 國際 資本主義 體系下的 下部 構造가 周邊國의 經濟를 構造적으로 흡수 통합하고 自律性を 剝奪함으로써 惹起되는 構造的 不平等(structural inequality)을 意味한다.²³⁾

21) Lall, Sanjaya, "Is dependence" A useful concept in analysing under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3 (November 1975), p.799.

22) Santos, T.D.,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0, No2 (May 1970), p.231.

23) 金浩鎮, 上揭論文, pp.99~100.

從屬概念을 이렇게 規定할 경우는 經濟的 吸引力과 統合力을 앞세운다는 差異된 帝國主義와 같은 것이 된다.

T. D. Santos 는 兩者를 區別치 않고 Dependence 로 表記하나 그 意味는 dependency 측에 가까우며, 金浩鎭은 外勢 또는 外國 文物의 침투로 因한 自主性 喪失의 程度, 範圍, 領域의 限界 문제이므로 一律的인 規制보다는 論者들의 主觀的 見解에 따름이 可하다고 한다.²⁴⁾

非Marxism의 近代化 理論 或은 Ryan의 犧牲者非難論으로 表現되는 理論과 對照되는 從屬理論은 第三世界가 겪고 있는 低發展(underdevelopment)의 原因을 資本主義 經濟 構造에 있다고 確信하며 第三世界の 獨立은 植民帝國主義의 청산이 아니라 宗主國의 교체와 產業化에 따른 支配(Domination Pattern)의 變形(transformin)으로 보아 國際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中心과 周邊으로 類型化하는 한편 各 범주내의 關係를 不平等 交換 或은 착취 關係로 上程한다.²⁵⁾

한 國家內에도 중심과 주변 의 국내 식민주의가 존재한다는 종속논자²⁶⁾들은 「주변국의 중심인구는 國富를 獨점하여 대다수 빈곤층의 빈곤을 방관함으로써 주변국 사회계층간의 불만과 불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분열만을 야기시킨다」고 역설한다.

現代 帝國主義는 제도적, 구조적으로 종속적인 민족계급이나 권력구조를 주변국 내에 형성함으로써 주변국 민족부르조아는 제국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어 민족 부르조아가 종속관계를 단절코자 하면 그들은 지배계급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4) 本論文에서는 從屬理論의 批判的 視覺과 韓國의 獨創的 發展理論 모색이라는 立場에서 經濟的 從屬론 아니라 보다 多様な 意味로 使用코져 Dependency 로 統一하여 使用하였다.

25) 從屬論者들은 第三世界라는 用語조차 기피한다. 世界는 資本主義 陣營과 社會主義 陣營의 두 世界이지 第三世界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第三世界는 資本主義 陣營內의 發展國의 從屬狀態를 은폐하기 爲한 用語라고 主張한다. (Jaile, The pillage of the third world, C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68) chap I. p.39.

26) James petras and Robert Laporte Jr. "U.S. Response to Economic nationalism in chile", in J. petras(ed), Latin America; From Dependence to Revolu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3), chap5. 廉弘喆, 上揭書, p.150 재인용

민족부르조아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 발전을 주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한다. 이같은 주변국내의 토착부르조아의 취약성은 국내적 종속구조의 주요 요인이 된다²⁷⁾고 분석한다.

2) 從屬모형 (Dependency Model)의 등장과 전개

第三世界 國家發展 失敗의 原因을 國際政治經濟的 次元에서 찾는 從屬모형은 發展의 가장 重要한 저해 要因으로 中心國들의 역할을 強調하면서 그 解決策을 中心 - 周邊關係의 縮少에서 찾는다.

接近法上 新植民主義 (Neocolonialism) 내지 現代帝國主義 理論이라 할 수 있다.²⁸⁾

近代化 모델이 經濟發展을 外生變數 (exogenous variable)에서 찾는데 비해 從屬모형은 經濟從屬을 外生變數로 취급한다.²⁹⁾

成長 可能性에 관하여서도 從屬이 貧困을 가져온다는 A.G. Frank 등의 강경한 立場에서부터 市場수축과 經濟정체를 가져온다는 初期의 Frutado, Sunkel, Santos 등의 中途的 立場, 그리고 成長은 可能하나 恒常 추종적이고 비고용적인 역할로서만 機能한다는 Cardoso의 見解等 多樣하다.³⁰⁾

從屬의 歷史的 發展 形態를 보면,

- ①固有한 發展法則을 갖고 있는 世界經濟의 基本 形態 (植民地的 從屬)
- ②資本主義 中心部の 支配的인 여러 經濟 關係의 類型과 그 中心部가 外部로 膨脹하는 方法 (19世紀 末에 確立된 金融產業的 從屬)
- ③資本主義의 膨脹에 의해서 形成된 國際經濟 關係의 組織속에 從屬的 位置로

27) 廉弘喆, 上揭書, pp.150 ~ 157.

28) 新植民主義라는 表現은 1950年代初에 처음 使用되었다. Asia와 Africa의 反植民主義的 指導者들은 統制要素를 核心으로 問題視한다. 이 理論의 가장 重要한 部分은 經濟的 帝國主義 理論이다. 經濟的 統制는 相異한 形態를 取하며 여러가지 種類로 행사되고 있다. 經濟的 支配의 主形態는 언제나 經濟的으로 落後된 地域의 支拂能力 있는 수단과 物的 수단에 關한 發展한 資本主義國家들의 統制이다. (尹謹植, 第三世界의 Ideology와 政治, 서울, 中央出版印刷(株), 1981, p.39).

29) 柳勝男, "政黨體系의 理念 分散에 關한 經驗的 分析", 제 4 회합동학술대 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 1981, p.99.

30) Lall, Sanjaya, ibid, p.284.

편입되는 周邊國의 內部에 存在하는 여러 經濟 關係의 類型(多國的 企業等)으로 갈라 볼 수 있다.³¹⁾

특히 종속경제의 여러관계 類型중 원조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그들 從屬論者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海外원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원조는 商品市場을 擴大하고 자국 기업을 膨脹시키려는 機能을 分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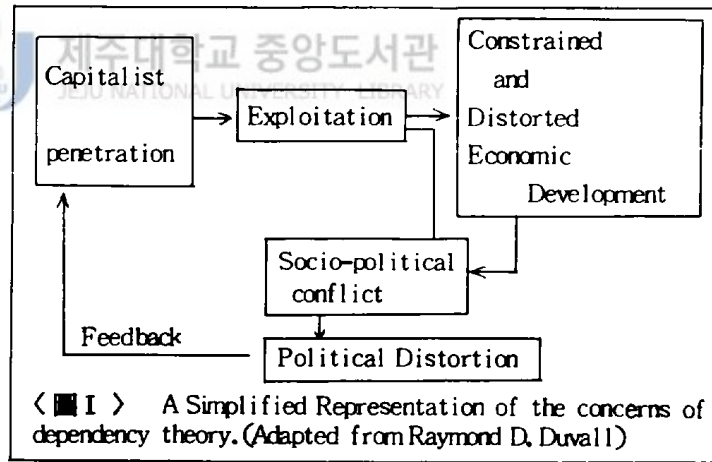
Magdoff는 美國援助의 目的 내지 結果를

- ①美國의 全世界的 軍事, 政治政策을 遂行하는 역할을 한다.
- ②援助는 美國企業의 原料수입과 貿易에 對한 投資機會를 自由롭게 하기 위한 門戶開放政策을 強化하는 役割을 한다.
- ③低發展國에서의 經濟成長이 資本主義 方式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 ④援助政策은 美企業의 經濟利得을 爲한 모든 可能的 政策을 遂行한다.
- ⑤受援國이 美國의 資本市場이 되고 이에 從屬케 만든다. (圖 I 參照)

오늘날의 中心國들은 以外에 무엇으로 周邊國들을 從屬시키는가 Sunkel, o는 그것을 多國籍企業에서 찾고 있다.³²⁾

多國籍企業 分析에 있어 外資가 有利한 理由는 大部分의 경우 機械 輸入을 爲한 外換使用에는 換管理

상의 特惠가 부여되며 工場설비를 위한 부지 確保에 金融特惠가 賦與되고, 政府投資기관이 工業化를 推進하므로 國內外 銀行 대부가 可能하며 設備後에도 好條件의



31) Santos, T.Dos, ibid, 변형운, 김태환 편역, "第三世界の 經濟發展", 서울, 까치사, 1981, pp.148 ~ 150.

32) Sunkel, o,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External Dependen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6, No1 (oct, 1969)
 - Dos Santos 는 이를 새로운 從屬이라 부르고 있다.

높은 수익이 자유롭게 再投資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Santos, T. Dos 는 위를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³³⁾

①大規模企業은 中心經濟에 있어 支配的인 形態가 되고 있는 經濟조직이다.

②이들 企業은 經濟的 集中을 強化시켰고 市場獨占과 높은 利潤水準을 유도 한다.

③外資의 利益을 代辯하는 行政階層이 생겨난다.

Lall, S. 도 亦是 多國籍企業은 周邊國經濟에 外資의 大量침투, 先進技術의 導入, 輸出強化, 支配階層의 消費形態 西歐化, 不平等交易, 소득격차 및 失業增大現象이 나타난다고 분석 했다.³⁴⁾

심지어 다국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매판 에리트를 매수하거나 誤導하므로써 경제파탄과 사회혼란을 초래하여 종속국 政體類型을 결정함은 물론 군사 및 사회주의 혁명의 素地를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³⁵⁾고 논하고 있다.

南美중심의 최근의 종속이론은 다음과 같이 4 단계를 거쳐 하나의 paradaim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여진다.

第一段階, ECLA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의 Raul Prebisch가 1949년 UN에 提出한 報告書(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에서 Latin 諸國의 經濟發展이 뒤진 原因은 國際間的 不平等 交換 關係에 있다고 主張, 輸入代替産業의 強化를 건의한 時期로서 比較優位論에 對한 再評價를 하게 하였으나 多國籍 企業의 擴大와 外債의 累增은 더욱 對外 從屬을 심화시킨 時期.

第二段階, 從屬理論形成期, 1960年代 中半以後 A. G. Frank 中心의 CESO 學派(Centre de Estudios sociales of the universidad de chile) 와 Santos. T. Dos 中心의 CEREN學派(Centre de Estudios de la Realidad Nacional of the

33) 廉弘喆, 上揭書 p.125, 한 國家에 母會社가 있고 他 國家에 子會社가 있는 企業을 가르키는 말에는 超國家企業(transnational corporations), 汎世界企業(global corporations), 國際企業(international corporations)등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34) S, Lall, ibid, p.803.

35) Apter, David and Goodman, houis wolf(eds),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Social chang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에 屬하는 一群의 學者들이 ECLA의 經濟發展 政策을 批判하고 從屬體系를 이룩하던 時期.

第三段階, 從屬理論 發展期. 1960年代末부터 70年代初에 Sunkel 과 Furtado 等に 의해 具體화된 時期.

第四段階, 1970年初 以後 從屬學派內에서 자가비판이 활발하게 전개 되는 이론 정비기.

아직도 미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이는 종속이론에서 특기할것은 제3세계의 민족주의 운동과 불가분의 함수관계에서 시작되어 오늘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종속학파는 각기 다른 도구, 개념, 예측들을 사용하는 두개의 상이한 분석 양식으로 발전해 왔다.

즉 한편으로는 Prebish, Celso Furtado 및 ECLA의 구조론적 전통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Marxist자 및 新Marxist주의자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푸르타도나 선켈같은 온건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로부터 도스산토스나 카르도소와 같은 점진적인 급진주의자들을 거쳐 프랭크와 같은 노골적인 혁명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3) 종속이론의 제입장

종속이론가들은 세계를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한다.

중심에 속한 국가들은 자본집약, 기술집약적 산업을 개발할 수 있고 자본이나 경영능력을 대량 공급 받을 수 있으며 공업발전 및 경제 성장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반면 주변국가들은 모든 면에서 중심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주변은 어차피 중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종속이론의 기본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학자의 이론을 살펴 보자.³⁶⁾

36) 본 論文에서는 ① 남미중심의 從屬理論 登장의 토양을 제공하였다는 입장에서 Baran 과 Hirshmann 을,

② 앞서 논술한 從屬理論 發展의 제일단계에서 국가간 불평등과 저개발 문제를 가지고 第三世界를 본격적으로 分析하기 시작하였다는 입장에서 Prebisch와 Myrdal 을

① Paul Baran 과 A. O. Hirschmann

Baran 은 Marx - Lenin 의 전통을 이어받아 제 3 세계의 후진성의 역사적 근원을 살피고 있는 바 세계 자본주의 맥락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려 했다.³⁷⁾

그의 기본적 분석도구는 경제잉여의 概念(economic surplus)으로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低發展의 주요원인을 資本의 부족 및 企業家정신의 부족 혹은 人口과다 등에서 찾는 견해를 비판하고, 先進資本主義 여러나라의 침투로 인한 궁핍화, 착취, 경제잉여의 낭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外國資本에 의한 원료의 착취, 낭비, 부패, 매관政權등의 총체적인 현상으로 帝國主義를 이해하고 있다.

Baran 이 재구성한 理論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革命의 문제이다.

제 3 세계의 발전은 경제잉여의 모순 때문에 不可能하므로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封建貴族과 資本主義者들의 結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職業的인 社會革命家들이 革命을 主導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전통 Marxist 들이 主張하는 proletariats 革命이 後進社會에서도 可能하다는 劃期的 主張이 될 수 있다.

Baran 의 低發展에 대한 分析은 몇몇 細部的인 事項을 除外하고는 從屬論者들의 重要한 部分들을 거의 다루고 있다.

한편 Hirschmann 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貿易을 국가권력의 팽창수단으로 보고 이것이 종속관계형성의 主要因임을 지적한다.

“貿易은 전쟁의 代案이 되며 주권국가간의 관계에서 억압적 방법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전쟁이 없어진다 해도 무역은 국가간의 관계에서 종속관계의 형성 및 영향력

③ 從屬理論의 제 2 단계 (이론형성기)에서 급진적 입장과 온건한 입장의 接近시도로서 Frank 와 Sunkei 을,

④ 從屬理論을 南美以外の 지역에서, 그리고 순수경제분석 출발의 입장에서 다소 떠나 사회학의 계층이론적 接近을 시도하였다는 입장에서 Galtung 과 Amin 으로 区分하여 논술하겠다.

37) Baran, P.A,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N.Y.; monthly Review, 1957).

행사의 수단이 된다.”³⁸⁾

이러한 見解는 貿易을 指標로 하는 從屬의 정도 측정을 시도하는 방법상의 기여와 더불어 Caporaso와 Galtung의 理論形成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이 확실하다.

② Raul Prebisch와 Gunnar Myrdal

두 사람은 2차대전후의 國際經濟秩序를 신랄히 批判하면서 그들의 主張을 第三世界에 適用하였다.

“중심지에서 만들어진 이론적 설명과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는 그 차가 매우 크다.”고 한 Prebisch는 低發展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中心-周邊」 개념에서 찾았다.³⁹⁾

그에 의하면 비교우위의 원칙에 의한 국제분업의 이익은 특수한 사실을 일반화시켰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일차상품 교역조건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약하므로 주변의 國際收支를 악화시키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불가능케 한다⁴⁰⁾는 것이다.

市場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배된다는 전통적 發展모형을 받아드리는 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사실상 평등한 관제란 기본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Prebisch는 이와같은 모순을 없애고 제3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輸入代替 (import substitution) 政策만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⁴¹⁾

- ① 중심국은 주변국에 일차상품시장의 문호를 개방할 것
- ② 일차 상품 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필요성
- ③ 후진국의 교역조건 악화를 보상하기 위한 국제 기금의 창설

38) Hirschmann, Albert, o,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45), p.15.

39) Prebisch, Raul, Hacia una dinamica del desarrollo latin americano (Mexico, 1963) p. xii. 廉弘喆, 上掲書, p.84 재인용.

40) Prebisch, Raul,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 New York; United Nations, 1950.

41) 장계순, 上掲論文, pp.21 ~ 22.

④ 후진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인하

⑤ 일방적 관세 인하

⑥ 후진국 상호간의 교역 증대 등

이러한 代案은 선진국으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⁴²⁾

Gunnar Myrdal 도 자본주의 체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國家間 不平等은 너무 심화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國際貿易은 一般的으로 이미 確立되어 있는 不平等體系를 더욱 심화시키는 傾向이 있다……累積的, 순환적作用으로 先進國의 生産성과 所得은 더욱 增加하고 後進國의 그것은 더욱 惡化되고 있다……이는 市場의 自動조정장치의 문제인 것이다.”⁴³⁾

그도 역시 國際主義的 立場에서 先進國의 責任을 力說한다.

③ Andre G. Frank 와 T. Dos Santos

第三世界 近代化에 대한 批判과 새로운 理論모형의 提示에서 進一步하여 西歐社會에서 形成 發展되었다고 할 수 있는 大部分의 社會科學의 主要概念 및 認識論까지 否定하고 第三世界의 主體的 立場에서 새롭게 概念 規定할 것을 主張하는 Latin America 의 學問 自由化 運動은 1965年 Stavenhagen, Rodolf 의 “Latin America 에 관한 7 가지 오류”와 1966年 Andre Gundar Frank 의 “低發展의 發展”이란 冊에서부터 비롯된다.

underdeveloped (低發展)과 undeveloped (未發展)을 區分하여 低發展은 先進諸國의 착취의 結果이며 未發展은 本源的으로 開發되지 않은 狀態를 意味한다고 한다.

不平等 發展이 世界 資本主義의 統一的 發展의 內容이라면 低發展은 그 結果⁴⁴⁾라는 것이다.

42)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利害관계의 상충은 결국 급진적인 從屬理論의 출현을 고무하였다고 할수 있다. James C, Ingram, International Economic problems (N.Y. John Willex, 1966) 참조.

43) Myrdal, Gunnar. The challenge of poverty (N.Y. Vintage, 1970) p.297.

44) 河環根, 上揭書, p.81.

Frank의 一聯의 著書들은 그때까지의 發展理論 및 帝國主義 理論에서 從屬理論에 로의 새로운 章을 펼친 것이다. 즉 그는 ① 正統 Marx 理論이나 二重社會理論에서 分析되어지는 바와는 달리 大部分의 Latin America는 이미 植民地 初期 段階에서 世界 資本主義 體制에 편입되었다.

發展과 低發展 概念 역시 先進 資本主義 社會의 經濟 構造와 低發展된 第三世界의 그것이 하나인 世界資本主義體制의 兩部分으로 理解되어져야 하며, 構造的으로 相互 拘束한다는 點에서 聯關的이고 質的인 것이다.

②低發展의 原因을 解明하는 資本主義의 세가지 모순을 提示한다.

ㄱ. 經濟的 잉여의 착취 및 受容의 모순 (Contradiction of expropriation and appropriation of Economic surplus)

ㄴ. 中心부와 周邊부의 兩極化 모순 (Contradiction of Metroplis - Satellite polarization)

ㄷ. 變化에 있어서 連續性的의 모순⁴⁵⁾(Contradiction of continuity in change)

經濟發展과 低發展 概念에 있어서 近代化理論者와 Frank의 差異는 接近方法에서 온 것인바 近代化論者는 兩者의 關係를 構造機能主義에 依한 類概念으로 把握하나 Frank는 歷史的 構造主義에 依해서 個體概念으로 理解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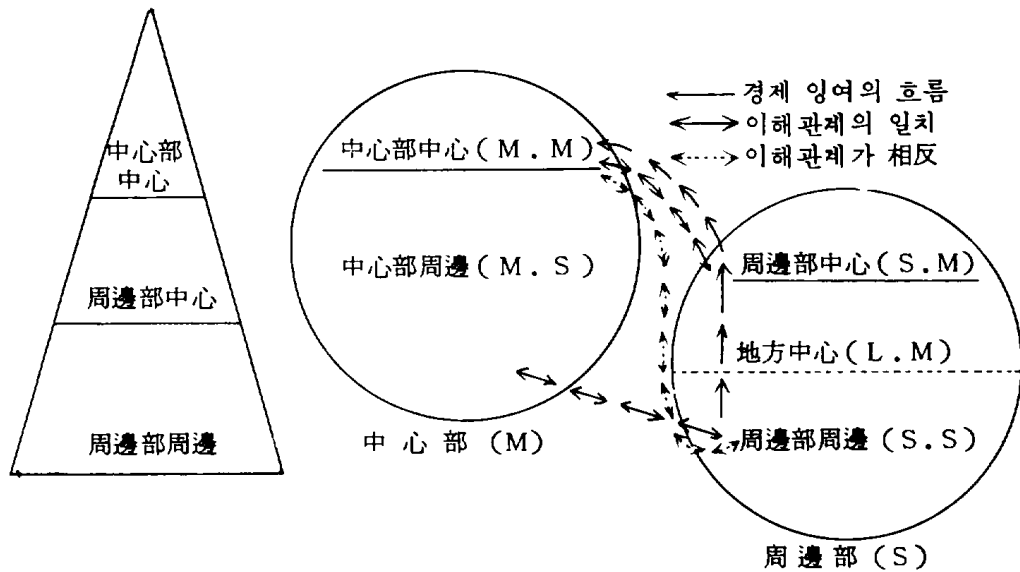
經濟發展과 低發展은 獨立的인 두 個體를 量的으로 比較할때 나타나는 優劣의 比較가 아니고 同一한 事物의 다른 側面을 指稱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低發展原因을 歷史的 比較 研究를 通하여 經驗的으로 규명하므로서 從屬理論을 適實性있게 體系的으로 定立하였다고 보여진다.

生産關係를 完全히 交換關係에 從屬시키고 階級對立을 中心地들과 衛星國들 間의 國際的 對立에 從屬시키고 있는 그의 見解는 Latin America의 運命은 이미 수 백년 前 植民主義 初期에 決定되어진 從屬메카니즘의 단조로운 反復에서 찾고 生産力의 相異한 發展단계와 階層構造에 由 환원될 수 있는 支配 當하는 나라들의 特殊性을 全的으로 視覺 밖에 두는 지나친 決定主義的 모델을 構成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⁴⁶⁾

45) 趙退耕, 上揭論文, p.68 ~ 69.

46) 尹謹植, 上揭書, p.46.



〈圖Ⅱ〉 世界資本主義 體系 (Galtung 의 제국주의 구조를 參照하여 Frank 가 圖式化 한것임)

要는 經濟的 後進性은 Metropolitan과 Satellite 間의 非衡平的 關係의 產物이며 이는 資本主義 發展過程의 必然的 結果라 본다.

그러므로 中心國은 繁榮하고 衛星國은 쇠퇴한다. 따라서 위성국은 中心國과의 連結이 弱할수록 發展이 促進되며 歷史的으로 볼 때 中心國에 더 깊은 依속 關係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이에 對해 T. Dos Santos는 第三世界의 周邊化가 問題되는 것은 從屬이라고 하는 國際的 狀況에 의해 條件지어진 內部 構造의 形態라고 한다.

그는 周邊部의 內部 構造 分析을 通하여 接近을 示圖하고 있으나 이는 內部 構造의 核心을 이루는 勞動力의 社會的 存在 形態가 어떻게 發展하고 있는가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分析을 하지 않고 있다.⁴⁷⁾

그러나 世界 資本主義 概念을 生産의 國際的 分業構造에서 이루어진 有機

47) Santos, T. Dos, "The crisis of development theory and the problem of Dependence in Latin America", in Henry Bernstein (ed), underdevelopment and development; The Third world Toda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6), p.76. 洪旭憲, 上揭論文 p.40 引用.

的 結合體로 보아 具體化 시킨 點과 世界資本主義 體系는 資源의 生産構造이기 때문에 物質的 生産을 中心으로 形成된 周邊部 內部的 人間關係 즉 階級에 影響을 미치기는 하지만 階級 그 自體는 아니고 周邊部 內部的 階級分析은 世界資本主義 分析과는 다르게 獨自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論理를 展開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⁴⁸⁾

④ Johan Galtung 과 Samir A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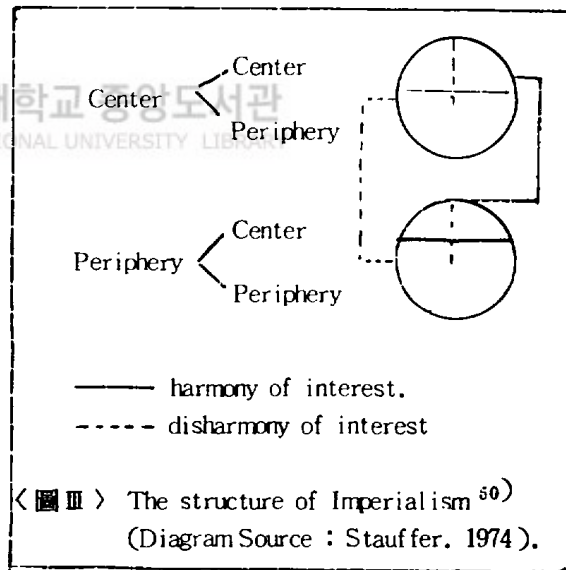
從屬理論의 最大 취약점은 서술적 (descriptive) 事例研究 水準에 머물러, 概念的, 操作的 特化 (conceptual operationalization) 가 어렵다는 데 있다.

J. Galtung 의 構造分析 (structural analysis) 理論은 이 難點을 科學的으로 處理한 것으로 評價된다. 構造的 分析은 Marxism과 正統的 社會科學의 限界를 中和시키기 위한 第三의 代案으로 등장한 것이다.⁴⁹⁾

國際體系는 中心-周邊모델의 構造를 갖고 있으며 그 “관계”가 帝國主義라는 社會學의 階層理論에 由來한다는 接近을 하고 있다.

帝國主義 構造이든, 從屬理論이든 間에 中心과 周邊사이에 漸增하는 gap 이 支配階級間的 尤대를 튼튼하게 하여 相互交換 및 作用 體系에서 國際關係의 垂直的 (vertical) 또는 封建的 作用 構造를 形成한다고 分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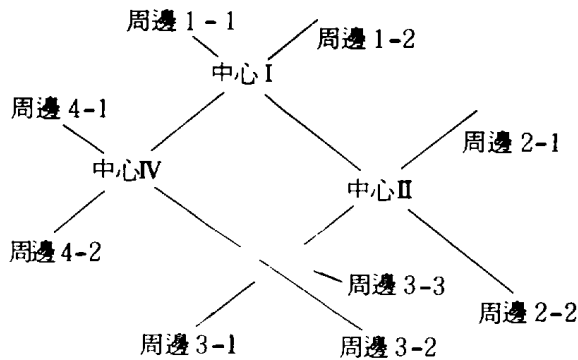
垂直的 相互作用이 不平等의 뒤에 있는 主要한 要因이라면 封建的 相互作用 構造는 그것을 維持 強化 시키는 要因이라고 보는 것이다.



48) 洪旭憲, 上揭論文, p.42.

49) 廉弘喆, 上揭書, p.92. 洪旭憲, 上揭論文, p.28.

50) Stauffer, Robert B. "Philippine Authoritarianism; Framework for peripheral Development". Paper prepared for publication, 1976. (typewritten). Ho-Jin Kim, "The Dependency Approach to political integration in third world nations; An Appraisal,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 19 Problems on the third world,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79. p.216 재인용.



〈圖Ⅳ〉 Galtung의 封建的 中心-周邊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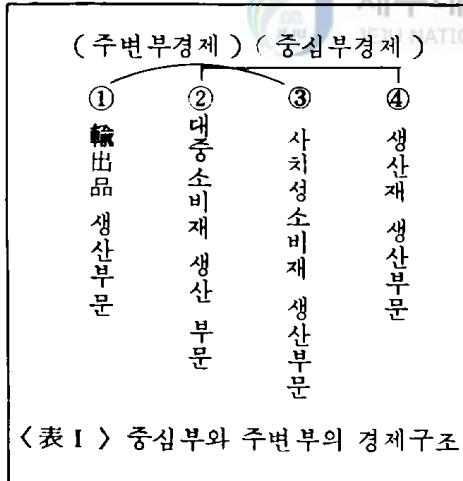
〈圖Ⅲ〉과 같은 構造의 經濟的 結果는 交易相對國의 集中(concentration trade partners)과 商品의 集中(commodity concentration), 그리고 垂直的 構造의 심화 현상을 나타낸다.

그의 主張은 國際 資本主義 經濟 體制는 必然的으로 支配-從屬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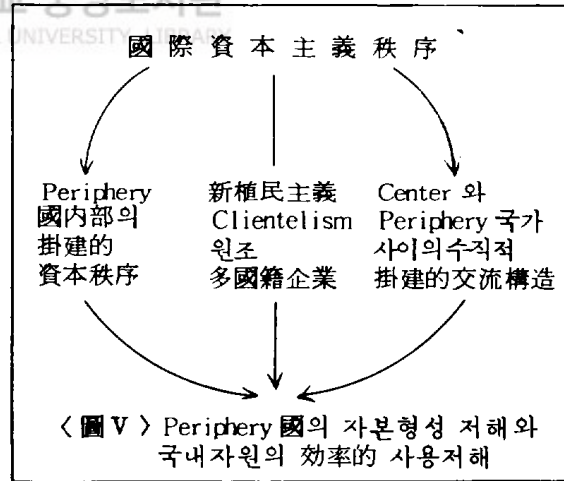
로 연쇄되어 있다는 主張을 拂拭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했으나 그의 理論의 비역사성과 무엇이 依存關係를 決定하며 그 기원이 무엇인지는 설명 않고 있다.

實際로 그의 理論의 例外는 許多하다.

Samir Amin은 中心과 周邊의 關係를 世界資本主義 體制의 固有한 축적과정에 서 把握하려 함과 同時에 國民經濟의 內部 構造에 對하여 分析을 시도하였다.



〈表Ⅰ〉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제구조



〈圖Ⅴ〉 Periphery 國의 자본형성 저해와 國內資源의 效率的 使用저해

中心部 資本主義는 資本主義的 生産樣式 하나만으로 構成되는 社會이나 周邊部 資本主義는 여러가지 生産樣式이 溫存하는 社會라는 것이다.

世界 資本主義의 分業 構造上의 歪曲性에 대해서도 〈表Ⅰ〉에서 보는것처럼 ②와 ④의 현저한 結合이 中心部 經濟의 構造的 特徵인데 比하여 ①과 ③의 밀착이 주변부 경제의 特徵이라고 보는 Amin은 輸入代替工業化 政策을 第二段階 帝國主

義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⁵¹⁾

3. 脫 從屬의 戰略

발전이 무엇이며 발전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발전과 저발전의 설명 變數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戰略(脫 從屬의 방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從屬 理論家들은 발전을 인간주의적이고 實存主義的이며 발전 倫理學的인 관점에서 量보다 質을, 生産보다는 分配를 重視하고 經濟的 平等과 配分正義, 人間解放과 소외의 克服, 잠재성의 開發과 基本慾求의 充足, 經濟主權의 回復과 自主性的 確保 등으로 概念化한다.⁵²⁾

그러므로 모든 從屬理論家들은 現存하는 政治經濟的 狀況의 根本的인 變化를 要求하고 있음은 공통적인 현상이다.⁵³⁾

國內外 經濟體系의 構造的인 變化를 發展의 前題條件으로 하여 그 變化의 內容과 方法에 따라 온건주의자들은 資本主義體制를 原則的으로 認定하면서 社會的改革(social reformation)을 要求하나 急進主義者들은 武裝鬪爭이나 게릴라 活動을 包含하는 革命(revolution), 特히 社會主義 革命을主張한다.

51) 廉弘喆, 上揭書, p.99.

52) 金浩鎮, 上揭論文, p.105.

53) 從屬學派는 二個의 相異한 方向으로 發展했다. (構造主義的 傳統과 neo-Marxism 的 계국주의 方向).

Bath, C.R, James, D.D는 ①保守的 接近方式의 學者들 ② 온건주의자들 ③急進主義者들로, Lall 은 ① 온건한 社會主義的 民族主義者 ② 점진적인 급진주의자

③ 노골적인 혁명주의자, Philip J.o,Brien은 ①구조주의적 방법론자 ② 마르크스적 方法論者 ③ 절충주의적 방법론자, 변형윤은 초기와 후기이론으로, 廉弘喆은 ① 부류조아적 觀點의 구조주의자 ② 마르크스주의적 기본입장의 급진주의적 觀點으로, 그리고 김호진은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누는 것으로 믿어진다.

本 論文에서는 그 性格上 온건주의자와 급진주의자로 나누어 論述하겠다.

1) 온건주의자의 社會改革

Griffin, Keith, Santos, T. Dos, Cardoso, F, Furtado, C 등의 主張으로 現存 資本主義 經濟秩序가 內包하고 있는 諸般 모순점의 시정에 역점을 두므로써 그 接近方法도 점진적인 改革이어야 한다는 立場이다.

Griffin, K⁵⁴⁾는 發展의 本質을 制度的 改革에 두어 教育, 土地所有, 行政制度 등의 變革은 革命없이도 實現 可能하다고 한다.

改革의 要素들은 서로 關聯을 맺고 있으므로 成長을 자극하는 獨立變數로 作用하며 發展의 先行條件이 됨과 同時에 다른 發展政策의 補完도 可能하고 그 效率性도 提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社會改革은 內的 構造를 變化시키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反面 Cardoso는 社會改革은 組織化되지 못한 大衆을 民族主義아래 조직화 시켜야 하는데 特히, 邊方的 部門의 大衆이 조직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Sunkel⁵⁵⁾역시 邊方階層의 參與를 必須的인 것으로 보고 그 手段으로 民族意識의 高취를 力說했다. 이것은 自國의 自然的, 社會的, 技術的 要素들을 보다 效率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는 데도 有益하다는 것이다.

Chilcote와 Edelstein⁵⁶⁾은 從屬을 克服하려는 國民은 소외감의 拂拭과 消費 Pattern의 修正, 勞動誘因의 增大, 集團意識의 함양 등 4가지 基本 問題를 解決하려는 “새로운 人間의 形成”이 必要하다고 역설했다.

結局 온건론자의 立場은 오히려 資本主義 체제를 옹호하고 있으며 다만 市場原理보다는 計劃과 統制를 重視하는 이른바 國家資本主義(state capitalism) 또는

54) Griffin, Keith, The political Economy of Agrarian change; An Essay on the Green Revolu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31.

55) Sunkel, o. "Economic Independence cannot be the Marginal consequence of an Heroic Ac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6. No, 1 (1969) 참조.

56) Chilcote and Joel, C. Edelstein, "Introduction; Alternative perspectives of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in R.H. Chilcote and J.C. Edelstein(eds), Latin America; The struggle with Dependency and Beyond (Cambridge, Mass; Schenkman publishing Co., 1974) p.27.

民族資本主義의 立場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2) 急進主義者의 革命

急進主義者들은 Marx의 戰略 戰術과 결부되어 暴力과 破壞를 수반하는 과격한 方法을 통해 資本主義의 批判, 私有財產制의 克服으로 現體制의 崩壞와 社會主義 건설을 비전으로 내 거는 등 복잡한 樣相을 띄고 있다.

원한과 설움에 사무친 피압박 民族들은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오늘의 苦痛의 原因인 不正義에 對하여 暴力以外의 어떤 수단이 그것을 補償해 줄 것인가 하는 問題를 提起하면서 解放 혹은 脫從屬을 爲한 暴力을 美化시킨다.

억눌린者의 自我發見的 수단으로 暴力을 肯定하고 民族主義的 排外體制와 統制 原理를 國家發展의 基本戰略으로 上程한다.

Roxborough는 既存體制의 固守를 主張하는 支配階層은 보다 民族的이고 發展 指向的인 勢力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指摘한다.

이들의 革命 戰略은 必然的으로 經濟的 計劃主義와 社會的 集團主義를 主張하는 點에서 社會主義 革命(socialist revolution)으로 展開된다.

大多數의 從屬理論家들이 이러한 Marxism의 見解를 取하고 있으며 歷史的 狀況論理의 맥락에서 第三世界의 적지 않은 知性人들이 이를 믿고 있음은 事實이다.

James. D. Cockcraft⁵⁷⁾는 Latin America의 政治的 主體性을 確立키 위해 採擇할 수 있는 代案은 革命的 民族主義(revolutionary nationalism)뿐이라고 한다.

Galtung도 國際政治의 적나라한 構造는 第三世界의 集團的 등장에도 不拘하고 新植民主主義 내지 帝國主義가 支配的인 位置에 있으므로 이 構造的 暴力(structural violence)에서 弱者의 호소나 要求는 論理나 說得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때 弱者의 最後 수단은 무엇인가고 反問한다.

第三世界 人民들에게는 社會主義가 매력적이냐, 어떠한 問題가 아니라 다른 어

57) Cockcraft, James.D. "Last Rites for the Reformist Model in Latin America", in J.D. Cockcraft, et, al, of, cit p.118.

떠한 解決策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好惡의 問題가 아니라 必然의 問題다.

과격론자인 Regis Debray 는 「革命속의 革命 (Revolution in the Revolution)」에서 “革命의 條件은 이미 第三世界에 存在하고 있으므로 이제 民衆은 銃을 들고 언덕을 기어 오르는 것만이 必要한 行動”이라고 한다.

「社會主義中에서도 단 하나의 社會主義만이 기아를 克服하고 노예를 人間의 地位로 끌어 올린다. 그것이 Marxism Leninism」이라고 主張한다.

이들은 構造的 低發展 狀態를 타파할 政治的 行動을 義務로 強調하고 特히 Frank 는 革命的 戰略에서 窮極的 敵(principle enemy)과 當面の 敵(immediate enemy)으로 區分하여 窮極的으로는 帝國主義에 대한 鬪爭을 해야 하지만 現實 戰術로는 우선 當면의 敵인 土着부르주아에 對抗하여 大衆을 動員하는 것이 效果的 이라 한다.⁵⁸⁾ 여기에 이르러서는 從屬理論은 共產主義의 또 다른 戰略 戰術의 한 形態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發展이라는 말 代身에 解放이라는 用語를 즐겨 使用하기도 한다.



58) 김영명, 上揭論文, p.83. 이점에 對해서는 Frank, Latin America, ChapV, “Who is the immediate Enemy?” 參照.

IV. 從屬理論에 대한 綜合的 評價

1. 理論의 問題點

어떤 理論이 人類歷史의 發展을 連帶責任으로 理解하고 相互協力하려면 모든 形態의 獨斷主義(dogmatism)는 止揚되어야 한다.

第三世界가 貧困하여 植民地 歷史를 共通으로 갖고 있고 이것이 社會統合과 國家發展의 障礙요인이 되며, 發展된 産業國家들과의 끊임없는 一種의 對決意識이 同一性(Identity) 確保를 어렵게하는 것이 事實이라 하더라도 貧富의 否定的 現象만을 分析하여 貧富差 그 自體를 拒否하는 傾向과 貿易과 投資를 先進 資本主義 國家의 原料供給과 獨占企業의 利益追求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獨斷이다.

從屬理論이 지닌 問題點을 4 部門으로 大別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자.

1) 概念上的 問題點

從屬理論은 國際關係를 從屬이란 概念을 통해 封建的이고 수직적인 關係로만 規定한다. 從屬 아니면 非從屬이라는 狀態만이 存立 可能하다고 함으로서 이것들이 하나의 連續線上의 變數들이 아님을 애써 強調한다.

非從屬(non dependency)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意圖적으로 定義를 안 내린다.⁵⁹⁾

國際關係에 있어 相互關聯은 必然的인 것임으로 從屬이란 것도 그렇다, 아니다의 問題이기 보다는 程度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從屬狀況을 줄일 수 있는 여러 政策代案을 無視하여 버린 셈이 된다.

事實上 先·後進國은 國際市場에서 相互 作用 아래 發展을 하고 있으며 또 經濟的 變數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살피기에는 너무 包括的이다.

59) 劉英俊, 上揭論文 p.78.

복잡한 流通過程과 多元的인 國家의 相互 交流 關係의 메카니즘을 從屬이라는 單一概念으로 說明한다는 것은 너무 조작적이며, 또한 從屬관계는 第三世界에만 해당한다는 것도 억지다. 資源等은 逆으로 依存하고 있다.⁶⁰⁾

2) 假說上의 問題點

從屬理論은 國際 資本主義 經濟秩序를 不等價 交換 내지 수탈 體制로만 把握한다. 이는 Karl Marx의 노동가치설의 中心概念인 바 第三世界の 貧困은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責任도 없다는 가정이다.

商品價値는 一定의 技術을 가지고 必要한 平均 勞動 時間에 의하여 測定될 수 있다는 것과 生産要素의 自由로운 移動이 保障될 수 있도록 經濟體制가 競爭的이면서도 長期의 均衡狀態를 유지하여야만 等價交換이 可能한데 勞動이 서로 다른 地域에서 不平等하게 보상되고 있는 現實이므로 하나의 商品이 交換될때 不平等하게 交換되고 低發展國은 損害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등가교환과 가치의 착취는 생산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국제경제의 구조적 모순만이 빈곤의 원인은 아니며 제3세계 자신의 사회, 정치 및 문화정책적 요인에서도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 종속이론가들은 외자와 기술의 도입을 저발전의 원인으로 상정하고 무역에 있어서 비교우위론도 배격하나 외자 중에는 장기저리차관 처럼 경제기반의 구축에 기여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 하지 못하며 기술도입 문제 역시 일본의 경우 처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기술도입에 의한 실업 발생 문제에 있어서도 R. Müller가 “The impac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on the Balance of Payments of LDCs” 라는 논문

60) 裴燦福, “從屬理論의 Ideology 的 批判” 國民倫理研究 第14號, 서울, 國民倫理學會, 1982, pp.81~82.

에서 밝혔듯이 일단 피상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Neil, H. Jacoby⁶¹⁾는 대만 사례 연구에서 低發展國의 경제 성장과 외국 원조와의 생산성 관계 상관도 조사에서 긍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바 오히려 후자가 더욱 타당성 있는 견해라고 본다.

중심국과의 상호 교류에서 더욱 빈곤해진 나라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종속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 국민들의 발전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 및 자원과 세계시장을 통한 유통구조에 의한 탓도 크다고 하겠다.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론의 배경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외자와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상품이나 산업을 육성하느냐에 따라 비교우위의 확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外資와 技術導入, 比較優位 그 自體를 否定하는 見解는 보편성이 희박하다.⁶²⁾

또 從屬理論은 第三世界 政府를 自國의 支配階級과 外勢의 利益에 奉仕하는 從屬構造의 道具로, 統治 élite는 이들의 下手人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近代化된 élite 들은 西歐와 國內의 物質的, 非物質的 要素들을 올바르게 配合할 수 있는 地位에 있는 小數의 影響力있는 階層이다.

그들은 國際上의 相互依存關係가 緊密해지면 아무리 작고 弱한 國家의 行動도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때문에 個別化되고 局部化되기가 힘들뿐 아니라 어떤 強大國도 신속하고 效果的으로 武力을 통한 견제에 成功하기 힘들다는 것과 복잡한 國際關係가 內包하는 意味를 理解하여 이러한 結果로부터 得이 될수 있는 土着的 戰略을 모색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다.

外勢와의 密着은 그들 國家의 利益追求(national interest)를 爲한 國際 協力の 한 表現이라고 보아야 한다.

61) Neil, H. Jacoby, U.S Aid to Taiwan (New York ; Praeger, 1966).

62) Ray. David, "The dependency Model of Latin American underdevelopment ; Three Basic Fallacies", Journal of Inter 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15, February 1973, pp.4 ~ 20. 金浩鎮, 上揭論文 p.110 再引用.

3) 方法上の 問題点

從屬理論은 國家를 國際經濟秩序의 從屬變數로만 간주한다.

第三世界 國家나 政府의 自律性과 主體性은 전혀 없는 것으로 취급함은 지나친 獨斷論이며 基本 假定 設定 方法 역시 單정적이다.

이는 世界 資本主義論 自體가 지닌 理論的 한계에서 나온 것으로

- ①社會의 全體의性格을 歷史的, 構造的으로만 把握하고 있기 때문이며,
- ②社會構造의 全體의이고 巨視的인 理解에 도움을 주는 世界資本主義論을 모든 社會理論에 擴大하여 社會諸理論을 지나치게 單純化, 一般化했기 때문이며,
- ③第三世界의 “問題” 폭로에는 어느 程度 成功하고 있지만 社會全體의 發展 過程 說明에는 論理的인 비약이 많다.

現實的으로 第三世界國家는 自身の 意志와 努力, 그리고 政策 如何에 따라 國際 位階上에서 그 차지하는 位置를 相當히 變化시킬 수 있다.

그리고 從屬理論은 低發展 現象을 分析하는데 있어 基本的으로 全體論 (Holism) 的인 接近法을 援用하고 있다.

이는 說得力있는 一般理論의 定立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記述次元 내지는 假說的 理論에 그쳐 科學的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短期政策의 處方的 指針에 머무르게 한다.⁶³⁾

따라서 從屬理論의 앞으로의 展望은 하나의 理論으로서의 體系化보다는 第三世界 解放等의 戰鬪的 口號아래 政策 및 戰略戰術指針으로서 反支配鬪爭모형開發 쪽으로 研究動向이 흐를 危險性이 多分히 있다.

즉 아직은 接近法 (approach) 에 머문 狀態이고 嚴密한 意味에서 理論 (theory) 이라고 보기는 힘든 現實이다.

63) J. Samuel and Arturo Valenzuela, "Modernization and dependence; Alternative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in Joe J. Villamil (ed), transnational capitalism and National Development; New perspectives on Dependence (New Jersey; Humanities press Inc, 1979), p.53. 劉英俊, 上揭論文 p.77. 再引用.

4) 戰略上的 問題點

上述한 바와 같이 脫從屬과 發展戰略에는 온건主義者의 改革과 急進主義者의 革命으로 要約할 수 있다. 問題가 되는 것은 急進主義者의 革命戰略이다.

裴燦福은 從屬理論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社會主義의 또 다른 共產革命 戰略으로 보고 있다.⁶⁴⁾

實相 從屬理論은 마르크스 主義的 觀點을 相當部門 包含하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資本主義의 問題點을 批判하려는 本質的 性格上 相對的으로 마르크스主義的 傳統을 따르는 學者의 主張이 더 크게 들리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Bodenheimer는 帝國主義를 “위에서 보는 見解(a view from above)”로, 從屬理論을 “밑에서 보는 見解(a view from below)”로 表現한다.

從屬理論의 中心 周邊概念은 마르크스의 階級鬭爭에서 연유하며 急進主義者의 革命論은 proletariat 獨裁論과 같다.

革命主體가 勞動者계급인데 比하여 從屬理論은 周邊階級이며 피착취라는 共通點 위에서 폭로 戰術을 크게 活用함도 같다.

마르크스의 資本主義批判이 순수한 學問的 研究라기 보다는 資本主義 崩壞라는 獨斷的 假定을 合理化시킬려고 하는것 처럼 從屬理論 역시 資本主義 破壞가 그 目的이므로 이 둘은 同一 目的의 異時的表現이라고 보는 學者도 많다.⁶⁵⁾

그러나 두 理論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도 嚴然히 存在한다.

①마르크스주의자는 低發展의 原因을 第三世界의 封建的 經濟性格에서 求하는데 比해 從屬理論은 第一世界 經濟에의 構造的 편입에서 找으며,

②階級理論에 있어서는 마르크스主義는 부르조아지와 프로레타리아의 對立과 鬭爭을 重視하는데 反해 從屬理論은 매판 資本勢力과 周邊階層間의 對立과 鬭爭을 重

64) 裴燦福, “從屬理論의 Ideology 的 批判” 國民倫理研究 第 14 號, 서울, 國民倫理 研究會, pp.81 ~ 82.

65) 裴燦福, 上揭論文 p.103.

視한다.

③階級鬭爭論에 있어서도 마르크시즘은 國內次元에 초점을 두는데 比하여 從屬理論은 國際次元에 擴大시켜 論理를 展開한다.

④마르크시스트가 계급이데올로기적 屬性이 강한데 比해 從屬理論은 民族利益을 強調하는 民族 이데올로기 이다.

⑤最終目標에 있어서도 마르크시스트는 社會主義를 통한 共產社會를 發展目標로 하는데 比해 從屬理論은 民族解放을 主要 發展目標로 간주하므로써 社會主義는 民族解放의 수단이 된다.⁶⁶⁾

또 從屬理論과 社會主義도 論理構造 自體가 類似하고 唯物論的 認識이 그 바탕을 이룸으로서 “狀況이 意識을 決定한다”는 觀念에서 出發하므로 物量中心의 思想이며 그 具體的 戰略이 相當히 類似하고 目標가 平等社會의 社會秩序 確立에 두고 있다는 點에서는 兩者의 共通點을 相當히 깊게 지적할 수 있다.

上述한 바에 비추어 볼 때 急進主義의 暴力革命 戰略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그 問題點을 지적할 수 있다.⁶⁷⁾

①手段의 非道德性

暴力革命을 통한 發展의 追求는 결코 道德的으로 容納될 수 없다.

革命이 正當視되는 것은 既存의 制度나 道德보다 훨씬 人間的인 制度나 道德을 創造하려는 目標를 가질때이며, 問題는 가난과 從屬으로 부터의 解放이 革命에 犧牲되는 人間的 代價를 正當化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勿論 現在의 低發展 狀態의 構造的 모순에 依한 惡도 수많은 人間的 直接, 間接의 犧牲을 要求한다고 보여지나 直接 暴力의 共產革命은 그 程度에 있어 比較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歷史의 教訓이다.

②戰略의 非現實성과 發展政策의 失敗可能性

嚴密하게 말하면 既存體制를 타도하고 새秩序를 구축한다는 것은 社會的 混亂과 國力の 浪費만 招來한다.

66) 金浩鎮, 上揭論文 pp.102 ~ 104.

67) 金浩鎮, 上揭論文 pp.112 ~ 113.

社會主義 體制의 採擇은 國家發展의 障礙 아니면 또 다른 強大國에의 從屬만을 惹起시킬 뿐이다.

③論理的 허위성과 모순성

低發展 狀態와 關聯된 廣範圍한 問題와 現象들을 分析, 理解하기 爲한 視覺에서 出發한 從屬分析은 低發展의 問題(question of underdevelopment)에 對한 理論 構成에서 從屬이라는 實體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理論 構成”이라는 認識論的 側面에서 하나의 概念構造의 틀, 一聯의 概念, 假說化된 연관성등을 提示한것은 分明하나 學問的 活動 보다는 現實적이고 實踐的인 이데올로기가 包括⁶⁸⁾ 되므로 資本主義의 長點은 過小評價되고 취약점은 資本主義의 全部인것처럼 擴大함으로서 社會主義革命 유도의 戰略戰術的 必要때문에 論理的 오류는 어쩔수 없이 초래되었다.

또 平等社會의 實現을 내세워 人間다운 삶을 과시 하려는 그들의 社會主義的 現實은 밀로반·질라스의 지적처럼 새로운 階級을 形成시켜 人間예속과 고통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러므로 從屬論者의 發展代案은 理想主義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非現實的 허구이며 現實 否定과 破壞가 主 目標일뿐 人間條件 改善에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非人間的 代案이라고 보아진다.

2. 韓國에의 適用性 여부

最近 從屬理論의 韓國 適用 問題에 對하여 많이 學論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經濟가 輸出主導의 成長을 이루는 過程에서 나타난 對內的 不平等과 對外 依存의 심화 문제에 對한 意識을 새롭게 하고 있다.⁶⁹⁾

68) 廉弘喆, 上揭書, p.188. 이에 對하여 Kahl, Joseph은 “實際的인 側面에서 볼때 從屬理論이란 研究에 對한 하나의 觀點(視覺 Perspective)이라고는 할수있으나 分析 構造로서 科學的인 意味에서의 理論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고 있다.

69) 여기에서 不平等이란 주로 所得上의 概念이다. 1人當 GNP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그 分配 狀態가 고르지 못하면 全體國民의 福祉와는 相關이 없다.

이 이론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한데 어떤이들은 自國의 歷史와 現實을 主體
的인 視覺에서 照明하였다는 方法論的 敎訓을 내세워 現實에 많이 適用될 수 있다
고 主張하기도 하고 또 어떤이들은 研究方法으로서의 受容價値는 充分하나 實踐原
理로서의 受容價値는 없다고 보는 側도 있다.

어떠한 이론도 抽象的 法則體系로 남아 있는限 適用可能性 여부를 따지지 못한다.
이론이 現實에 適用되는 길은 그 이론이 새로운 假說體系로 옮겨지거나 이론가
운데 方法論的 觀點과 節次를 援用할때 열린다. 그러므로 새로운 社會科學的 理論
體系를 導入 受容함에는 그 이론의 體系的인 理解와 批判的인 受容過程이 必要하다.

從屬理論 自體가 一般化 및 세련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Latin
America의 歷史的 經驗에 과잉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과 韓國的 特殊狀況인 分斷
이라는 獨立 變數와 그것이 갖는 論理的, 戰略上의 문제와 Ideology의 性向은 韓
國社會의 現象分析에 從屬理論을 그대로 適用시키기에는 現 段階로서는 不可能하
다고 본다.

現在 韓國의 現實은 先進資本主義의 政治經濟的 從屬狀態에 있는가에 對하여 朴
宇熙는 韓國經濟를 新興工業化 推進國家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한다.⁷⁰⁾

그렇다고 自我準據的 問題意識을 提供하는 從屬理論의 問題意識自體를 拒否하기
에는 性急한 感이 있다.

Galtung은 從屬性 여부를 檢證하는 基準으로

- ①貿易 相對國이 하나이거나 매우 작은 數에 크게 依存하고
- ②價格面에서 非彈力的인 農產物이나 原料를 輸出하며
- ③外國의 人力이 核心的인 業務나 政府의 地位에 있어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며

韓國은 1965年 以後 10여년 동안 年平均 10.5%의 高度成長을 이룩했으나 階層
間的 所得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惡化一路에 있다. (張桂淳, 上揭論文, p.71 參照)

70) 朴宇熙, “新 國際 經濟秩序와 韓國經濟” 月刊朝鮮, 1981년 7월, p.91.

高性俊, “南北韓 關係에서 본 從屬理論” — A. G. Frank의 이론과 關聯
하여 濟州大學論文集 第 14號(社會科學編), 濟州大學校, 1981. p.373.
再引用.

④地域的企業(local enterprise)에 投資된 外國資本의 比率이 매우 높을때
⑤ 現政權을 유지하는데 外國의 軍事的,政治的 支援을 받을때 등을 들고 있다.⁷¹⁾
解放以後 實證的인 分析 卽 外國援助 및 投資가 國內의 經濟發展과 所得不平等
에 미친 影響 또는 技術移轉에 따른 문제들을 고려하여 從屬여부의 判斷이 있어야
하나 第二次的인 資料(secondary data)에 依하면 韓國은 例外的 現象에 屬한다는
것이다.

A. G. Frank 의 지적처럼 韓國에서 高度의 獨占構造에 依해 經濟的 잉여의 大部
분이 中心部에 착취되었고 그것이 勞動者에게 아무런 惠澤도 준비 없다고 할수 없
으며 眞正 獨占構造下의 經濟發展이 多數에게는 低發展만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 경제적 잉여를 착취한 中心部는 加速的으로 發展되나 周邊部에는 低發展 現
象이 나타나 國民經濟 內部的 不平等 構造를 심화시킨다는 假定도 全的으로 同意
하기 힘들다.

事實 韓國은 60年代 以來 國際關係속에서 社會間接資本등을 충실히 쌓아 올렸
고 저축 gap 도 相當히 좁아졌다.

海外 건설수출은 人力의 輸出과 함께 分明히 韓國의 比較優位를 確保해 주고 있
으며 輸出商品의 90%以上이 工產品인 韓國經濟를 從屬理論의 論理로 分析하려함
은 相當한 無理를 수반한다.⁷²⁾

相對的 貧困이 國民不滿의 中心과제가 되어 成長効率は 勿論 平等効率도 크게
생각하게 된 狀況에서 高度成長에의 市民的 參與는 그만큼 위축된 것이 事實이다.

現在 賃金 격차가 큰것이 우리 經濟의 不均衡成長을 잘 說明해주며 이는 國內의
不平等을 심화시키고 配分의 문제를 惹起시켰으나 從屬理論家들의 上程하는 Latin
諸國의 樣相과는 多少 거리가 있다.

71) Chang, Stevens and Weinstein, John M.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Korea & world affairs. A quarterly Review. Vol.4 No.1, spring, 1980) p.92.

宋在福, “從屬理論, 韓國適用可能性의 再檢討” 高大신문 제 197 호, 1982.6.8.
72) 高性俊, 上揭論文 p.373.

73)

소득계층 \ 연도	1965년	1970년	1978년
하위 4%	19.3	19.6	15.5
상위 2%	41.8	41.6	46.7

〈表Ⅱ〉 한국의 所得點有率 變化 %
鄭基俊, “國民所得의 分配와 귀결”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게, 1981.

칠레의 경우 1960년대 부유階層 10%가 國民所得의 40%를, 멕시코는 부유한 20%가 都市所得의 62.5%를, 가난한 20%階層은 1.3%를 차지했으며 브라질은 1960~70년동안 부유한 5%가 44~45%를, 가난한 40%階層은 10.6%에서 8.1%로 감소했다.

韓國의 경우는 表Ⅱ와 같다.

또 多國籍企業과 技術獨占이 경제적 잉여를 수탈한다고 하나 비록 단편적인 예이나 國內 石油會社 油公과 合作한 國際 石油會社 Gulf의 年利潤率分析(1964~1980년)을 보면 平均 10.7%이었다.⁷⁴⁾

輸出爲主의 工業化와 外債 累增은 經濟自立과 所得 不均衡에 따른 社會的 二重構造의 심화, 價値觀의 混亂을 招來한 것이 事實이라 하더라도 生存的 近代化의 理想으로서는 賢明한 選擇이었다.

이러한 經濟成長의 肯定的 面과 否定的 面을 同時에 理解하고 否定的 面을 解決하는 政策的 方案은 從屬理論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分析視覺을 같이 한다는 點에서 Ideology의 거부 反應을 일으키는 것은 事實이나 對內不平等과 對外 依存度를 줄이며 自我準據의 視覺에서 發展問題를 본다는 點에서는 매우 肯定的이다.

現在와 같은 開放社會에서 第三世界가 發展하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先進國의 발전을 教訓삼아 變化에 適應함으로서 환경과 實體間의 斷層에서 벗어나 賦存資源의 限界를 克服하여 發展키 爲해서는 對外志向의 自由 開放의 近代化論이 더욱 有用하다.

結局 外向의 產業化의 理論도, 自力更生의 內向의 產業化의 理論에도 限界가 있다.

73) 宋在福, 上揭論文 再引用.

74) 以上, 宋在福, 上揭論文引用, Gulf의 年利潤率 分析은 東亞日報 1980년 4월 14일 일에서 발췌.

韓國에 어떤 理論의 受容 내지 適用의 問題는 歷史와 現實에 비추어 보다 適實性 있게 再構成하거나 나름대로의 視覺에서 發展문제를 다룰 獨創的 理論모색이 요청된다. 前者가 These 라면, 後者は Antithese 가 되며 獨創的인 發展理論은 Synthese 의 길이어야만 할 것이다.⁷⁵⁾

要컨데 民族(nation)의 바탕위에서 近代性(modernity)이 추구되어야 한다.

事實 民族과 近代性은 20 C에서 가장 人間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理想이다.

兩者는 概念上으로는 別個의 것 처럼 보이나 相互 補完的이다.

共同目的, 相互信賴는 民族의 感情이며 科學的 發見, 새 技術, 工業生産은 近代性의 道具이다. 民族은 近代化의 主要課題를 共同으로 推進해온 人間 共同體라고 C.Black 은 지적한다.

그러기에 民族은 近代科學과 産業에 있어서 分業을 爲한 社會的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 近代性에 對한 希求는 民族의 忠誠心을 하나의 焦點으로 모을 수 있다.

第三世界가 民族의 바탕위에서 近代化를 추구하려면 參與와 分배, 消費文化지양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Galbraith 의 言及처럼 經濟發展은 全國民의 熱誠的인 參與를 必要로 하는 巨大한 運動이며 平等의 誘因없이 民族全體를 지속적으로 成長에 參與시킬 수 없으며 文化面에서도 消費풍조의 만연은 生産文化 形成을 가로막고 무계도한 生活의 作態는 國民間에 違和感만 造成한다.

從屬理論을 말할때는 은연중 近代化理論 一般을 意識하게 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事實인데 이 두 理論은 低發展이라는 同一現象에 對한 相異한 接近法이다.

이 둘은 많은 相衝性으로 말미암아 相互 排他的으로만 보이는 것이 事實이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相互 補完的으로 援容될 수도 있다면 韓國의 發展理論 着想은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제 남은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現象 說明을 爲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들에게서 부터 취사選擇 내지는 새로운 方向을 모색할것이나 하는 것은 韓國人 自身の 世

75) 車基壁, 上揭論文 p. 221.

界觀과 哲學에 달려 있다.

3..從屬理論의 實効性

한 理論의 實効性은 內部에 論理的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의 問題이며 論理란 사유의 規範으로서 科學에 共通적으로 內在하는 合意의 言語다. 또 現象들을 把握하는데 있어서 어느 程度 예리한 分析力과 명료한 說明力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適合性은 判斷되어야 한다.

西歐의 近代化理論이건 從屬理論이던 間에 그것이 科學적으로 批判될 수 있는 것은 그 理論의 論理的 問題와 分析力, 說明力에 關해서일뿐이다.

從屬理論은 特定の 歷史的 狀況에서, 歷史的 知識의 蓄積 과정에서 導出된 理論이라고 봄이 合理的이고 妥當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分析視覺의 確立과 함께 社會科學方法論에 있어서 總體的 歷史狀況 分析의 方法을 提示한다.

論理實證主義가 압도적인 오늘날 非歷史的, 抽象的 價値觀念에 對한 反命題를 提起한 點은 分명한 學問의 進展으로 評價되어 마땅하다.

歷史認識에 있어서도 從屬理論은 特히 韓國史學의 單線的 歷史認識을 克服하는 問題에 있어서 解決의 한 方式을 보여준다. 다시말하여 유럽적 歷史發展法則을 世界史的 보편성으로 認識하는 限 정체성 問題를 회피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를 究明하는 有用한 分析들이 된다.⁷⁶⁾

要件에 第三世界問題의 核心은 國際的 不平等의 原因과 그 解決策으로 集約된다.

低發展國의 國內要因에서 그 原因을 찾고 밖으로 부터의 도움에서 그 解決策을 찾는 傳統的 發展理論(the conventional theory of development)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發展과정을 저해함을 수긍치 않을 수 없다.

①近代化된 사람들은 西歐로 移住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그들 社會에서 그들의 技術과 專門知識을 活用할 수 없으며

76) 趙退耕, 上揭論文 p. 74.

②近代的 態度를 지닌 사람들은 보통 消費志向的이기 때문에 資本形成 과정 (the process of capital formation)을 弱화시키며

③近代的 사람은 世俗的인 態度를 견지하는데 이는 動員이데올로기 (the mobilizing ideologies)의 分散 要因으로 機能한다.⁷⁷⁾

또 先進國의 착취에서 그 原因을 찾고 國際關係의 構造的 改革에서 그 解決策을 모색하는 急進的 발전理論은

①非共産 産業強大國間에 實在보다 훨씬 더 큰 共通 關心事가 存在한다고 假定 하며

②周邊國家들은 단지 國際政治經濟關係의 客體(object)로만 취급하며,

③ Marxist 理論이 오늘날의 國際經濟 關係에 適用될 수 있다고 본다.⁷⁸⁾

이와 같은 弱點에도 불구하고 從屬理論에 對한 많은 批判이 없는 것은 最近에 대 두된 理論이며 덜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反映할 뿐이다.

그들이 現實 分析에서 예리한 批判 精神과 그 妥當性을 보여주는 것이 事實이나 그 評價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硬直된 思考를 노출 하며 그들의 客觀的 分析은 主觀的 價値의 그늘에 가리워져 너무 이데올로기적 이라는 評을 감수치 않을 수 없 다.

Latin America 의 特殊性이 第三世界의 一般性이 되고 第三世界의 具體性이 世界史的 보편성이 되기 爲해서는 보다 많은 理論의 蓄積이 要求된다.

Dependency 理論의 보다 나은 理解와 發展을 爲해서 다음과 같은 點을 환기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⁷⁹⁾

①이는 國際政治經濟에 있어 重要한 一聯의 問題點을 論하고 있다.

77) Portes, Aletandro, "Mordernity and Development ; A critiqu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8, 1973, p.258. 金東炫, "社會的 側面에서 본 發展 理論의 再吟味" 韓國政治學會報 第十五輯, 1981, p.47.

78) Gilpin, Robert, "Three Models of the Future", in C. Fred Bergsten and Lawrence B. Krause (eds), World polit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79) K. J. Holsti, " underdevelopment and the "Gap "theory of Int 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9, (sept., 1975) pp.827 ~ 839. 張桂淳, 上揭論文, pp.81 ~ 88 再引用.

②從屬은 複雜한 現象이므로 이를 규명하는 “틀”을 發展시켜야 한다.

③複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科學的 測定과 一般化가 可能할 수도 있다.

發展戰略에 있어서도 大部分 暴力革命을 통한 社會主義路線을 支持한다.

從屬論議가 젊은 Marxist的 性向의 學者들에게서 提起됨과 때를 같이하여 1960년대의 Marxism的 民族解放運動의 展開, 特히 Cuba 革命의 成功은 從屬理論을 더욱 急進的이고 과격한 理論으로 치달게 했다.

社會主義的 發展代案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⁸⁰⁾

① 社會主義 體制는 生産性을 低下한다. 個人的 生産性 動機(motive)가 제한됨으로 第三世界 國民의 人間的 삶의 수단을 감소시킬 뿐이다.

②平等의 欲求도 그 革命史가 보여 주듯이 “새로운 階級”의 出現을 나타내어 民主化보다는 獨裁化의 可能性을 더 크게 했다.

③脫從屬을 爲한 國際經濟로 부터의 絶緣은 또다른 經濟體制에의 從屬을 招來함으로서 결국 脫從屬은 無意味하다.

④革命에 依해서 결국 現存體制를 破壞시키는 것은 分明 “約束된 惠擇”을 7리지 못한 한 세대 또는 다음 세대에게는 너무 큰 犠牲과 代價가 要求된다.

最近 Amin, Frank, Fetras等 일단의 急進的이고 강경한 從屬理論家들은 從屬概念을 부르조아적 觀點을 支持하는 者들까지 共有하는데 不滿을 表示하고 보다 Marxism的 선회를 力說한다.

이러한 急進的 脫從屬 代案의 과격성은 自我準據的 分析 視覺으로서의 有用性을 크게 制限하여 從屬理論의 全體的 면모에 對한 一般的 認識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80) 以下 廉弘喆, 上揭書, pp.199 ~ 202.

V. 結論 : 韓國의 獨創的 發展理論의 모색

近代化理論도, 從屬理論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어떤 理論의 수용이나 현실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分析의 準據들로서의 獨自的 理論의 모색과 그 方法論의 探究이다. 問題는 韓國의 發展理論이 어떤 方向에서 이루어져야만 개개 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惠擇이 부여되는 복지, 정의 社會가 實現될 것이냐에 있다.

이런 意味에서 發展의 과정은 必然코 發展倫理的 次元의 가치평가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發展의 窮極的 實體는 결국 인간자신이며 모든 人間的 고려를 벗어난 發展 理論이나 計劃은 진정한 發展理論모색의 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선진자본주의의 잘못 발전된 社會(maldeveloped society) 또는 過多發展 社會(overdeveloped society)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도 좋으며, 第三世界의 民族主義가 民族 또는 國民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지 않은한 공허한 이데올로기로 戰略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타당하다.⁸¹⁾

發展의 倫理를 論議하는데 있어 理論的 分析은 취약성(Vulnerability)과 본질적 합리성(Existence rationality)이란 두가지 概念으로 이루어진다.⁸²⁾

취약성의 개념으로 발전을 짚어 보았을 때 인간성장이라는 측면 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능률적이라는 수단에 더 비중을 두게되어 결국 풍요속의 非人間化, 빈곤속의 非人間化라는 構造가 보편화 되면서 건강한 倫理가 흔들리게 된다.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는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제 3세계의 빈곤속의 비인간화된 현실에서 發展이라는 어떤 상태의 차원에 그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환시키는데는 언어, 문화, 역사, 의식공동체로서의 民族主義의 추구가 실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하

81) 김영명, 上揭論文 p.107.

82) 고창훈, "發展과 倫理" 濟大新報 31, 1983. 1. 1.

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發展의 倫理가 民族主義의 立場에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⁸³⁾

- ① 모든 민족이 자기신뢰에 입각한 자율적인 힘을 키우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 ② 주요 정책결정에 대중의 참여를 適正化시키므로써 대중의 소의를 극복하는 매듭을 엮어가야 하며.
- ③ 물질만능주의적 가치를 검약과 절제의 가치로 바꾸어 나가는 인간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具體的 전략으로서는

- ① 좋은 생활이란 물질의 풍요속에서만 정의되어서는 안되며.
- ② 공통된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연대의식의 끈을 찾아낼려는 노력이 발전과정에 연결되어야 하며.
- ③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고,
- ④ 자기문화에 대한 존경이 없을때 민족의 긍지는 흔들리므로 문화적 다양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발전윤리와 이론의 모색도 이와 같은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자기발전과정의 초기단계를 경험해왔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발전과정은 개별적 “場의 論理”에 맞는 자생적, 자존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몸부림이었다고 보여지며, 근대화가 “저발전의 발전”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시각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자기 발전적 저항은 불가피하였다.⁸⁴⁾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헌신적인 국민의 조직적인 노력은 어느정도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했고⁸⁵⁾ 역사적으로 볼때에도 많은 多樣한 것을 넓

83) 고창훈, 上揭論文參照.

84) 盧在鳳,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2차 한국정치학회 在北美한국인 정치학자회 합동학술대회 발표논문, pp.8~9.

85) 李奎浩, 國民倫理 教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2, pp.244~247.

고, 깊게 받아들여 완전히 자기것으로 소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韓民族이⁸⁶⁾ 라면 한국의 발전이론의 진정한 출발도, 그리고 “自體의 主體化”⁸⁷⁾도 韓民族에 대한 신뢰와 긍정에서 출발하여야 하겠다.

韓國 發展理論의 主體는 韓國自體이며 그 지향점도 韓國自體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경제적인 근대화도, 탈종속의 방안도, 정치사회적인 발전도 韓國人의 기본적인 삶을 확보해 주는 수단가치일뿐 그 자체가 목적가치가 될수는 없다.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정에 연관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측면을 각론적으로 미분하고 이후 그것을 相互 協同 研究의 틀 아래서 총론적으로 적분할 수 있을때 한국의 지나온 발전경험의 특수성은 제 3 세계의 저개발과 발전의 기본적 본질의 이해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⁸⁸⁾

그러므로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의 발전이론의 모색만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86) 李奎浩, 上揭書, p.241.

87) 文承益, 主体理論, 亞人關, 1970, pp.148 ~ 155.

88) 林玄鎭, “從屬理論의 可能性과 限界: 韓國의 發展 研究와 關聯하여”

李萬甲 교수 화갑記念 論叢,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서울대학교 사회학 研究會編, 法文社, 1983.

參 考 文 獻

○ 單 行 本

1. 文 丞 益, 「主體理論」, 서울 亞人閣, 1970.
2. 朴在圭 譯, 「國際 政治의 新論理」 서울 博英社, 1976 (Zbigniew Brzezinski, *Between two ages; America's Role in the Techno-ronic Era*)
3. 변형운 譯, 「第三世界의 經濟發展; 低發展과 從屬」 서울; 까치사, 1980. 김대환
4. 廉弘喆 譯, 「第三世界와 從屬理論」 서울; 한길사, 1980.
5. _____ 著, 「從屬理論—低發展의 政治 經濟學—」 서울; 법문사, 1981.
6. 李 奎 浩, 「國民倫理 教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2.
7. 尹謹植 編, 「現代 政治의 政治 經濟學의 分析」 서울, 法文社, 1980.
8. _____ 著, 「第三世界의 Ideology 와 政治」 <現代社會科學 叢書 2 > 서울; 中央출판印刷株式會社, 1981.
9. 河 璟 根, 「第三世界 政治論」 서울; 한길社, 1981.
10. Amin, Samir,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tran. by Brian Pflare. New Yook; Monthly Review Press, 1974.
11. Baran, Paul A.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7.
12. Chilcote, Ronald H.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s. the search for a paradigm*.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3. Frank, Andre Gunder.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Historical studies of chile and Brazi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9.

- 14 . Hirschman, Albert O.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5.
- 15 . Jalée, Pierre. *The pillage of the Third world.* trans. by Mary
klopp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0
- 16 . Kuhn, Thoma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17 . Myrdal, Gunnar.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Vol.1. Twentieth century Fund, Inc.,
1968.
- 18 . _____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New York; Vintage,
1970.
- 19 . Prebisch, Raul.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le problems.* New York; United nations, 1964.
- 20 . Toynbee, A. J. *A Study of history (12 Vol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21 . Wallerstein, Immanuel. *The capitalist World—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論 文

- 22 . 高性俊, “從屬理論과 韓國의 現實” — 共產主義 批判세미나 —, 濟州, 國民倫
理學會 濟州支會, 1981.
- 23 . _____, “南北韓 關係에서 본 從屬理論, — A. G. Frank 의 理論과 關聯하여
—,” 濟州大學 論文集 第14號 (社會科學 編), 濟州大學校, 1981.
- 24 . 고창훈, “發展과 倫理” 濟大新報 第31號 1983.1.1.
- 25 . 金 應, “南北問題의 政治的 側面” 「先後進國間의 갈등에 關한 研究」서울,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80.

26. 金東炫, “社會的 側面에서 본 發展의 再吟味” 韓國政治學會報 第15輯, 韓國政治學會, 1981.
27. 金承泰, “南北問題—先進國圈과 開途國圈間의 經濟協力 問題를 中心으로—,” 「先後進國間의 갈등에 關한 研究」,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28. 金英中, “從屬理論의 韓國社會適用性 問題” 高大新聞 第913號 1982.5.11
29. 金英中, “發展理論으로서의 從屬理論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外交學科 석사학위論文, 1979년 2월.
30. 金泳鎬, “韓民族 概念의 社會經濟的 再構成” 한가람, 創刊號, 1977.
31. 金浩鎭, “第三世界의 政治分析機能: 從屬理論 모형을 中心으로,” 韓國政治學會, 1980年度 年例學術大會 發表論文, 1980년 12월 19~20일.
32. _____, “低發展社會의 政治分析 體系” 政經文化, 1981년 3월호.
33. _____, “從屬理論 批判” 現代 社會思想의 諸 潮流—左傾思想의 흐름을 中心으로—國民倫理學會, 1982년도 춘계 세미나 發表論文, 1982. 5. 7-8일.
34. 盧在鳳, “이데올로기로서의 民主主義 —韓國의 경우를 中心으로—” 第2次 韓國政治學會 在北美 韓國人 政治學者會 合同 學術大會 發表論文.
35. 文丞益, “民主主義의 土着化” 韓國政治學會報, 第8集, 1974.
36. 朴宇熙, “新國際經濟秩序와 韓國經濟” 月刊 朝鮮 1981년 7월
37. 朴昇, “從屬理論과 韓國 經濟” 言論記者 研修院 研修교재, 1981년.
38. 朴형준, “從屬理論에 對한 몇가지 所見” 高大新聞 第915號. 1982년 5월 25일
39. 裴燦福, “從屬理論의 Ideology의 批判” 國民倫理研究 第14號, 서울 國民倫理學會, 1982년.
40. 변형운, “從屬理論의 形成背景과 最近 動向” 「月刊讀書」 1980년 7~8월 합병호.
41. 宋在福, “從屬理論, 韓國適用 可能性의 再檢討” 高大新聞 第917號, 1982년 6월 8일

42. 李奎浩, “生存과 繁榮을 爲한 決斷” 이데올로기 批判세미나 發表 要旨.
1981년 2월
43. 李容弼, “從屬學派에게 묻는다.” 「政經文化」, 1981년 3월호.
44. 柳勝男, “政黨體系の 理念分散에 關한 經驗的 分析” 韓國政治學會 第4회 合同學術大會論文集, 1981.
45. 유병실, “從屬理論, 韓國的 適實性에 關한 誤謬” 高大新聞 第914號 1982.
5.22.
46. 劉英俊, “從屬理論의 몇가지 理論的 特性에 關한 考察” 韓國政治學會報 第
15集, 韓國政治學會, 1981.
47. 廉弘喆, “아담스미스로 부터 從屬理論까지” 「政經文化」 1981년 3월호.
48. 林玄鎭, “從屬理論의 可能性과 限界: 韓國의 發展 研究와 關聯하여” 李萬用
교수 화갑기념논총,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서울대학교 사회학연
구회 편, 법문사, 1983.
49. 趙退耕, “從屬學派의 背景과 理論들” 「政經文化」 1981년 3월호
50. 張桂淳, “Dependency 理論을 通해 본 韓·日關係에 關한 分析; 1965년 國交
正常化 以後의 韓國의 對日 依存을 中心으로,” 延世大 大學院 政治
學科 석사학위 論文, 1978년 9월.
51. 陳德奎, “第三世界의 政治理念” 「第三世界」東亞日報社, 1980.
52. 全 雄, “從屬理論의 限界와 誤謬” 延世春秋 第922號 1982년 4월 12일
53. 車基壁,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의 社會科學的 意義” 社會發展研究: 理論方
法 및 歷史 韓國 社會科學研究所編, 民音社, 1978.
54. 崔永宗, “世界 資本主義의 變遷 過程” 高大新聞 第916號 1982년 6월 1일
55. 洪旭憲, “第三世界 資本主義論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政治學科 碩
士학위 論文
56. 황성모, “近代化理論의 脫神話化” 서울評論, 1975년 6월호

- 57 . Chang, Stovens. “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nd
Weinstein,John M Korea and world affairs.” A quarterly Review, vol.
4, No. I. spring, 1980.
- 58 . Dos Santos, Theotonio. “ The crisis of development theory and the pr-
oblem of dependency in Latin America ” in He-
nry Bernstein, ed., underdevelopment and dev-
elopment; The Third world today.(Harmondswo-
rth, Middlesex; penguin Books,)1976.
- 59 . Duvall, Raymond D. “ Dependence and Dependencia theory; Notes toward
precision of concept and Argu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l. 32, No. 1, winter 1978.
- 60 . Galtung, Johan. “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2, 1971.
- 61 . Ho-Jin, Kim, “ The dependency Approach to political integrati-
on in third world nations; An appraisal,” The Ko-
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19,
Problems on the third world, The Korean Associa -
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79.
- 62 . Lall, S. “ Is dependence a useful concept in Analysing un-
derdevelopment ? ” World Development Vol. 3,
November 1975.
- 63 . Neil H, Jacoby. “ U.S Aid to Taiwan.” New York: Praeger, 1966.
- 64 . O dong, Kim. “ The dependency theory and Its applicability to
Korean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Inter-
national Relations, No 19. Problems on the third
world,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
lations, 1979.

- 65 . Pyong-choon, Hahm, “ The affective Society Values and Law in Korea,”
in H. Lasswell, D, Lerner and J. D. Montgomery
(eds): Values and Development. Cambridge; MIT
press, 1976.
- 66 . Sunkel, Ovaldo. “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external depen-
dency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6, October, 1969.
- 67 . _____ “ Economic Independence cannot be the marginal
Consequence of an Heroic Act,” Journal of develop
ment studies, Vol.6, no.I, October 1969.
- 68 . Time magazine, “ Socialism; terials and errors.” Time cover story,
March, 13 1978.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Dependency Theory as a Theory for Development

Goh Soh-Nam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oh Sung-Jun

After World War II, most nations which are called "The Third World" today, have carried out modernization in order to found the basis of nation-building. As a result of that, the third world have achieved modernization in many fields, in the other side, many serious social problems have been disclosed. The problem of national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is vital to the underdeveloped societies. A major issue facing studen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hird world-especially Latin America is the dilemma of increasing global interdependence along side increasing inequality between and within states. In analyzing these problems of the third world, they criticized the irrelevance of the conventional theories which had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the Western historical settings. Dependency theory was produced in the process of this criticism. It is a theory that claims to explain underdevelopment of an "allegedly developing" country. The phenomenon of underdevelopment is, to begin with, unique as was defined by the dependentist and not a stage among many stages that a 'developing' nation reaches at while it moves along toward a developed industrial nation. It is, therefore, not a model or formula to prescribe economic growth or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theorist's interest for development of a particular area prevails ubiquitously in their expositions. Dependency theory has quite different position, somewhat contrary to the Western theories (Diffusion theories on modernization). The dependency paradigm is a global perspective for thinking about many aspects of development, distorted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enter-periphery relations over time and space. To borrow the Idea of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3.

dependency theory, Imperialism is one way in which the center nation has power over the periphery nation, so as to bring about a condition of disharmony of interest between them. Dependency theory is correct in that it points out and criticize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and wealth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tects reason for the underdevelopment in this unequal international relations. But it is incorrect in that many dependency theorists believe that the socialist revolution is the only way to the development of the underdeveloped. As noted above, a main idea contained in dependency theories is socialist revolution which favors in a sense political instability, conflict, and destruction of the system. Dependency is a matter of degree rather than of kind. It was inferred by this writer that we would be better aware of, by attempting to apply the dependency theory to Korea, a set of developmental obstacles that Korea faces, and she hopefully would make an effort to remove them before it is too late like in Latin America. Korea surrounded by the hostile political environment and by highly competitive industrial nations has almost no other alternative than depending on the metropoli for security, capital, and transfer of technology.

Real development means not only economic growth but advancement in many fields such as freedom, welfare, and self-realization, that is, it should experience the political Ethics progress. The problem is not so much the choic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as the political ethics—the freedom and responsibility—in the valuation of development press. The new concept of development must be founded and articulated according to this principle. Korean development theory should be built on this foundation.